

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PAPAYA STORY

외국인주민을 위한 토달정보서비스 파파야 스토리

www.papayastory.com

지금 스마트폰에서 papayastory를 검색하세요

제284호 2025년 01월 01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 7층(주네브 선월드 메디컬동) 8호 인쇄인 장용호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64 (주)아이피디 / danews1@daum.net 후원계좌 경기다문화뉴스 110-408-662725 신한은행 <2쇄>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센터장 이승미)는 지난 12월 13일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4층 대강당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와 지원지원' 정책을 주제로 진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가 설립 15주년을 맞아 안산시의 지원으로 운영법인인 한양대학교 EYCA와 공동주관해 진행됐다. <관련기사 4면> 이지는 기자

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돌파...외국인 88%가 월급 200만원 이상 받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역대 최대 규모인 156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 수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한 외국인 취업자 중 절반가량은 월급이 200만원대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일 하러 한국에 온 외국인근로자

한국 통계청은 최근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56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9.1%(13만 명) 증가했다고 밝혔어요. 이는 역대 가장 많은 규모예요.

취업자가 급증한 것은 올 들어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취

업자가 3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4000명(12.6%) 늘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받는 월평균 임금 수준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인 48만9000명(51.2%)으로 가장 많았어요. 이어 300만원 이상(37.1%),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8.4%) 순이었어요. 산업 분야별로 보면 광업과 제조업이 46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19만1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4만4000명) 등에서도 10만명을 웃돌았어요.

결혼이민자, 재외동포도 역대 최대

상주 외국인 156만1000명 중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등도 역대 최대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가 12만 2000명으로 1년 새 1.7% 늘었고 조선족과 고려인 등 재외동포도 4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4.1% 늘었어요. 유학생도 작년 대비 6.4% 불어난 20만명으로 집계됐어요. 한국 영주권이 있는 중국, 베트남 등 외국 국적자들은 14만1000명으로 1년 새 7.6%나 증가했어요. 이는 2012년 6만5000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예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62.1%는 향후 한국 국적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어요.

생활 만족도 높지만 언어는 문제

외국인들에게 한국생활에 대한 만족도

를 물었더니 84.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어요. 전기 대비 3.9%p 증가한 것이예요. 한국생활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없음(34.7%)이 가장 많았고, 이어 언어 문제(29.8%), 외로움(13.0%), 경제적 어려움(9.3%) 순으로 나타났어요. 이 가운데 언어 문제는 지난해 보다 5.1% 상승했고, 외로움은 3.9% 하락했어요.

'지난 1년간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7.4%가 '있다'고 대답했어요. 차별받은 원인으로는 '출신 국가'가 54.5%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한국어 능력(31.2%) 외모(9.1%) 등 순으로 집계됐어요. <러시아어 7면, 영어 7면, 태국어 40면>

파파야스토리



지자체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안산 3~10 파주 11~14 부천 15~19 시흥 20~26 용인 27~29 광명 30~33 과천 34 연천 35 김포 36~40



언어별 지면 안내

중국어(Chinese) 中文 5, 6, 21, 28, 31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13, 19, 25 러시아어(Russian) Русский 7, 12, 23, 37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8, 13, 25, 40 영어(English) 7, 12, 23, 32, 37 일본어(Japanese) 日本語 17



섹션별 지면 안내

정책 Policy 12 생활정보 Information 14, 22, 26, 33, 34, 39 나의 학습 My Study 9, 17, 28, 38 국제교류 2 도서관 Library 4, 27 보건 Health 10, 11 행사 Event 4, 10, 15, 16, 26, 29 교육 Education 30 외국인근로자 Foreign Worker 21, 32 창업 Start a business 5, 18, 25, 37 출입국 Immigration 13, 18, 23, 31, 38 이주민기자단 6, 19 통계 Statistics 1, 7, 40 범죄예방 8 환경 Environment 20, 29 여가 Leisure 24 복지 Welfare 31, 33

'경기여성 국제포럼'에서 세계 여성리더와 여성의 기회 확대 논의

경기도 2024 경기여성 국제포럼 개최...이주여성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도 논의

경기도가 12월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4 경기여성 국제포럼'을 열고 노동·이주·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을 여성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경기여성, 세계와 미래를 만나다-여성의 기회 확대를 위한 포용 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니스린 엘 하셰미티 국제과학신탁기금 왕립과학원 회장이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와 도의원, 각국 대사, 학계 및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축사를 통해 "저출생, 저성장이라는 시대적 위기 속에서 여성의 도전과 성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과 기회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여성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사회, 차별없이 일하는 사회, 안전하게 생활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전환기의 도전과 여성정책 과제'를 주제로 젠더폭력, 경제불평등, 인구위기 시대에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제언했다.

정 전 장관은 "여성고용률이 높은 국가들에서 출산율과 GDP가 상승한다는 통계가 있다. 분리된 여성고용정

책이 아닌 성평등한 노동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사회 전 분야의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고 일 쉼림 문화를 극복해야 저출생과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니스린 엘 하셰미티 국제과학신탁기금 왕립과학원 회장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왕립과학원의 지난 57년간의 성과와 여성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했던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이번 포럼은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온·오프라인 연사의 협력과 참여로 더욱 풍성한 논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 해소와 돌봄노동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안윤정 경기대학교 교수는 "학창시절 진로선택부터 구조적 성별격차가 있어 직업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노동시장 진입이전부터 성별 고정관념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진로·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리더십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계은행 컨설턴트 나안타라 보라는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을 제시했으며, 유엔여성기구 아태사무소 국장인 카차 프라이발드는 돌봄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엔여성기구의 성평등 증진 가이드를 소개했다.

두 번째 세션은 이주여성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다뤘다. 다모 의료&문화관광 협동조합 이라 대표는 이

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사례를, 김원규 도 이민사회국장은 이민사회 정책에 대한 도 성과와 대응방향을, 치바대학교 오가와 레이코 교수는 이주민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발표했다. 싱가포르국립대학교 테오도라 램 연구원은 다문화사회의 이주민 노동정책을 제언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여성 참여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정책연구소 권지혜 센터장이 STEM 분야 여성 진로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성공회대학교 정연보 교수는 인공지능(AI) 산업의 젠더 편향 해소 방안을, 버지니아대학교 마 히스 교수는 AI 개발·연구의 젠더 편향 문제를 각각 다뤘다.

폐회식에서는 이번 포럼의 핵심 결과물인 정책 제안이 전달됐다. 정책 제안은 ▲노동시장 내 성평등 강화 ▲이주여성의 사회적 통합 촉진 ▲과학기술 분야 여성 참여 확대를 주요 방향으로, 돌봄-비돌봄 임금격차 지표화, 여성노동자의 가족돌봄 틈새지원, 이주여성 상시 채용 연계 프로그램 구축, 경기도 인공지능 분야 여성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았다. 발표된 정책 제안은 경기도의 여성정책 실행 전략에 반영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포럼을 통해 여성의 기회 확대와 사회적 참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송하성 기자



경기도, '제1회 이주노동자 인식개선 우수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15점 선정해



경기도는 '제1회 경기도 이주노동자 인식개선 우수콘텐츠 공모전'의 수상작 15점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동영상 20점과 포스터 74점이 제출됐다. 총 94점의 작품 가운데 전문 심사위원

의 1차 심사와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수상작은 15점이다.

도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모집으로 대학교수, 이주민단체 등 심사위원 12명을 선정하고, 전문가 심사와 표절 등의 공개검증 과정을 거쳤다.

심사 결과, 동영상 부문의 '다양성의 선, 굿지 말고 이으세요'와 포스터 부문 '뿌리는 달라도 우리는 친구들'이 각각 대상을 받았으며,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장려상 7점이 선정됐다. 도는 동영상 대상 200만 원, 포스터 대상 60만 원 등 각 수상작에 대해 총상금 78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양성의 선, 굿지 말고 이으세요'는 직접 그린 일러스트를 활용해 만든 영상으로, 이주민의 존재와 다양성

앞에 우리 사회가 선을 굿지 않고 서로 있는다면 함께 살아가는 내일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포스터 부문 대상은 하남시 망월초등학교 3학년생이 수상했다. '뿌리는 달라도 우리는 친구들'은 외국에서 온 친구들의 뿌리는 서로 달라도 한국에서 함께 살고 있는 지금은 차별 없이 모두 친구라는 내용을 손 그림으로 표현해 주제에 대한 전달력이 명확하다는 평을 받았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이번 공모전으로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지역 사회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이주노동자를 향한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해 12월 19일 외국인주민 지원본부 다목적실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민관협의체’ 제2차 정기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민관협의체’는 교육, 근로복지, 출입국, 청소년, 안전 등 외국인 지원 관련 분야의 기관 관계자 15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기관 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권익 증진 방안 모색을 위해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을 비롯한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 해 추진한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의 점검과 함께 내년도 추진 예정인 주요사업들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산시는 올해 상록구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적응 지원을 위한 ‘동고동락’ 개소와 고려인 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행사 추진 등 외국인주민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힘써 왔다.

선진 외국인 정책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올해 국내외 기관에서 총 47회 472명이 안산시를 방문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며 다시 한번 정책 우수성을 입증했다. 안산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 안산 상호문화도시 국제심포지엄, 2026~2030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지역 특성을 활용한 로컬디자인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은 “안산시는 전국 최초 상호문화도시로 인증받은 만큼 오랜 시간 외국인 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외국인 정책역량을 바탕으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이주노동자 한국어 노래자랑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주관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해 12월 14일 단원구 고잔동에 소재한 한 공연연습장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래자랑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외국인 이주 노동자 한국어 교육 수료자들이 노래자랑을 통한 한국어 실력 향상의 성과를 선보이는 한편, 고국을 떠나 힘든 노동으로 지친 이주 노동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이주 노동자와 가족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외국인 이주 노동자 자녀들로 구성된 댄스팀의 공연으로 시작됐다. 노래자랑에는 총 9개 팀이 참가해 서로 다른 언어적 배경에도 열정적인 무대와 한국어로 부른 다양한 노래를 통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박상목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번 행사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게 잠시나마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문화세상고리협동조합과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산시 이주민 위한 후원



안산시(시장 이민근)에 지역사회 이주민들을 위한 후원이 잇따르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 24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문화세상고리협동조합(대표 백승희)으로부터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문화세상고리협동조합(이하 ‘문고리조합’)은 중국 등 6개국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이 함께 만든 다문화 공동체다. 아이들을 위한 상호문화 이해 교육은 물론, 안산 속 세계 문화 여행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이주배경 청소년 2명에게 장학금 형태로 전달될 계획이다.

백승희 문화세상고리협동조합 대표는 “우리 아이들이 ‘다름’을 이해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품고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산시는 지난 24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안

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대표 이창수)으로부터 후원금 3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하 ‘햇빛발전조합’)은 햇빛 발전 시공업을 하는 시민단체로 매년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후원금은 안산으로 이주해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난민여성공동체 ‘다이나믹우먼’ ▲네팔작은도서관 ▲유니버설스타즈배구단 등 3개 단체에 전달돼 시설 수선비 등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대표는 “조합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자랑스롭다”며 “이민청의 안산 유치로 외국인이 더욱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을 받은 유리엘 난민여성공동체 대표는 “평소 공동체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후원으로 큰 도움을 얻게 됐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지은 기자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과 미래 인재 성장의 발판!'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창립 15주년 '이주배경청소년이 만드는 더 나은 내일' 포럼 개최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센터장 이승미)는 지난 12월 13일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4층 대강당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와 자립지원 정책'을 주제로 진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가 설립 15주년을 맞아 안산시의 지원으로 운영법인인 한양대학교 ERICA와 공동주관해 진행됐다.

이승미 센터장은 개회사에서 2009년에 글로벌아동센터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기관의 역사와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지난 15년이 이주배경청소년의 양적 팽창과 이주배경의 다양화의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15년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자립과 사회적 진출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 취창업을 위한 직업학교 신설, 동포청년을 포괄하는 청년정책의 확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안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네트워크의 중심기관

으로써 늘 열정과 진정성으로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혜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적응지원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는 기관"이라며 "앞으로도 안산을 넘어 전국적인 선도가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준규 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혁신단 부단장은 "지난 15년간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착과 성장을 위해 헌신해 온 센터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한양대학교 에리카는 앞으로도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꿈과 진로를 지원하며 글로벌 코리아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포럼은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의 '후기 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현황과 과제'와 송영호 한

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위원의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장벽과 불안정성' 등의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이어서 각기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 온 4명의 이주배경청소년이 이주 초기의 어려움과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2025년에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위성철 꿈빛학교 학생은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한국어는 과거나 지금이나 끊임없는 도전"이라며 "사회에 나갔을 때 사용하는 말들을 가르치는 '취업 한국어교육'과 먼저 취업한 이주배경 선배님들과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성철 학생은 입국 초기 학교 적응이 어려운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 제도 확대, 안정적인 체류와 학업을 위한 비자문제 개선 등도 제안했다.

토론 후에는 센터 설립 15주년을 기념하고 이주배경청소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만드는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세러머니가 이어졌으며, 그라운드 몫 소속 이주배경청소년의 댄스 공연도 진행됐다.

이번 진로포럼에 참석한 유관기관 관계자는 "최근 이주배경청소년이 늘고 있어서 그들의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중도입국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이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포함한 제도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전국 최초로 설립된 이주배경청소년 시설의 15주년을 축하하고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설계에 대한 현실적인 의견을 공유한 뜻깊은 시간이 됐다는 평가다. 이지는 기자



안산시 수암도서관, 겨울 방학 특강...어린이 창의력 키우는 프로그램 선착순 접수

안산시(시장 이민근) 수암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2025년 겨울방학 기간을 맞이해 겨울방학특강 2개 강좌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진행되는 강좌는 '알랑퐁팡 그림책 상상놀이터'와 '몽글몽글 그림책 창의놀이터' 등 2개다.

'알랑퐁팡 그림책 상상놀이터'는 6~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그림책을 활용한 상상력 자극 책놀이와 표현활동으로 아이들이 책을 즐겁게 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몽글몽글 그림책 창의놀이터'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초등

저학년 어린이들이 다채로운 그림책 놀이로 창의력을 키우고, 친구들과 소통하며 사회성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두 강좌 모두 내년도 1월 11일부터 2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된다. 총 5주 과정의 강좌이며, 수강료는 무료지만

별도의 재료비는 1만 원이 소요된다.

접수는 안산시 통합예약시스템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하면 된다. 강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암도서관(031-481-3967)으로 전화 문의하거나 안산시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약물 낭비 줄이는 아이디어로 한국에서 상금 받고 비자도 받고!

'2024년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외국인 창업팀 8개사, 데모데이에서 성과 발표

한국에 와서 일을 하려면 흔히 E-9 비자 취득을 생각하는 외국인이 많지요.

하지만 E-9 비자를 갖고 한국 공장에서 일하는 것 보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또는 기술창업(D-8-4) 비자를 받고 작은 회사지만 기업인으로서 한국에서 일하는 것은 어떨까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4년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데모데이를 개최했어요.

데모데이는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과를 보여주는 대회예요. 외국인 창업팀40개사와 국내외의 벤처투자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어요.

2016년에 시작된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는 해외 우수 스타트업의 국내 법인 설립 및 한국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전세계 114개국에서 총 1,716팀이 참가 신청을 했어요.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40개팀을 최종 선정하였고, 이들은 9월에 한국에 입국해 약 3개월 반 동안 국내 창업기획자의 보육을 받으며 이번 데모데이를 준비했어요.

이날 데모데이에서는 사업화 성취도 평가와 창업기획자별 자체 예선을 거쳐 선발된 상위 8개팀이 창업 아이템과 사업계획을 발표했으며, 총 40만달러의 상금을 받을 상위 5개팀을 최종 선정했어요.

상금 15만달러를 받을 올해 최고의 외국인 창업팀으로는 'Polymerize'(인

도)가 선정됐어요. 10만달러 상금 받은 2위는 'Nanodropper'(미국), 3위는 'Open Energy'(포르투갈), 4위는 'Gimme Savor'(스페인), 5위는 'Murple'(중국)이 차지했어요.

1위 스타트업은 클라우드 기반의 AI 소재 정보학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보통 사람들이 도전하기에는 쉽지 않은 분야예요.

하지만 2위 스타트업은 약물 낭비를 줄이는 방법을 고안했고 4위 스타트업도 육고기, 해물, 치즈 등의 맛을 내는 식물 기반 단백질 제품을 생산하는 스타트업이에요. 5위 스타트업도 연구자들이 논문을 약 5배 더 빠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 문서 편집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어요.

어때요? 꼭 어려운 분야를 다루지 않아도 자신의 아이디어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지요?

이날 시상식에서는 상금을 받는 5개팀을 포함해 상위 20개팀을 발표했으며, 이들에게는 3개월간 사업화 자금지원과 추가 보육 등의 후속 지원을 제공해 한국 정착과 성장을 도울 계획이에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졌다면 외국인주민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중국어 하단, 베트남어 25면, 러시아어 37면, 태국어 25면, 영어 37면,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파파야스토리

减少药物浪费的创意, 获奖并取得韩国签证! ... "2024年K-Start Up Grand Challenge"

来韩国工作的话, 想取得E-9签证的外国人很多吧。

但是比起拿着E-9签证在韩国工厂工作, 获得"创业韩国特别签证"或技术创业(D-8-4)签证, 虽然在小公司但是作为企业家在韩国工作怎么样呢?

中小风险企业部今年12月11日在首尔coex举行了"2024年K-Start Up Grand Challenge"演示日。

演示日是挑战创业的人们展示自己成果的大会。

40家外国创业团队和国内外风险投资家等100多人参加了此次活动。

2016年开始的"K-Start Up Grand

Challenge"是支援海外优秀创业企业设立国内法人及定居韩国的项目, 今年来自全世界114个国家的1716个队申请参加。

经过文件审查和发表评价, 最终选定了40个队, 他们于9月入境韩国, 接受了国内创业企划者三个半月的保育, 准备了此次演示日。

在当天的演示日上, 通过事业化成就度评价和各创业企划者自行预选选出的前8个队发表了创业项目和事业计划, 最终选定了共可获40万美元奖金的前5个队。

获得15万美元奖金的今年最佳

外国人创业团队是"Polymerize"(印度)。获得10万美元奖金的第2名是《Nanodropper》(美国), 第3名是《Open Energy》(葡萄牙), 第4名是《Gimme Savor》(西班牙), 第5名是《Murple》(中国)。

排名第一的创业公司是一家开发基于云盘的AI材料信息学软件的公司。这是一般人很难挑战的领域。

但是第2名的创业公司研究出了减少药物浪费的方法, 第4名是生产具有肉、海鲜、奶酪等味道的植物基础蛋白质产品的创业公司。

排名第5的创业公司是开发帮助研

究者5倍快速完成论文的文件编辑平台。

怎么样? 不一定要在自己的领域, 你是否在努力用自己的创意改变世界?

在当天的颁奖典礼上, 公布了包括获奖的5个队在内的前20个队, 并计划向他们提供3个月的事业化资金支援和追加保育等后续支援, 帮助他们在韩国定居和成长。

如果具有挑战性和革新性的想法, 外国居民也不要放弃, 请挑战吧!

<한글 기사 상단>
파파야스토리

"이사왔어요~" 주택관리비

전입신고부터 아이전학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리스트

- 우편물 주소
- 전입신고
- 주택임대차
- 확정일자
- 아이 전학

이सान 곳으로 우편물 받는 법!

3개월간 무료로 바뀐 주소로 우편물 배달받아요!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우편물 발송이나 분실 우려 없이 변경된 주소지에서 편리하게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잘못된 우편 전송을 방지하고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어요.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무료 신청하세요!

- 신청방법** 인터넷 우체국, 우체국 방문,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점서취** 신분증 및 신청인의 주소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전입신고 시 함께 제출하면 좋아요.
- 수수료** - 동일구역 최초 3개월 무료
- 3개월 연장 시 4000원
- 리권역 3개월 7000원, 3개월 연장 시 7000원

*서비스 기간 우편물 발송인에게 주소 변경 사실을 알려주세요!

전입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이सान 날부터 2주 내로 전입신고 하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이सान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전입신고 신청은 이렇게

- 온라인** 민원24 포털인 (www.gov.kr) 전입신고 클릭 작성 후 신청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서 작성 청구접수 * 신분증 지참

확정일자 수수료 절약하는 방법?

임차인 권리 꼭 지키세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투명한 계약 내용 공개로 임차인(전월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거나, 보증금 800만 원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확정일자 신청
임대차 계약에 대해 증거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날입니다.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ms.molit.go.kr)에서 신고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임대차 계약서(신분증 지참)

TIP 확정일자 수수료 600원 절약 방법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계약을 제출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돼 별도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이사 후 아이 전학 절차는 어떻게?

이주민 기자단

“영상 동아리 활동 통해 다양한 이주민들의 삶을 배우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꿈빛학교’, 영상 동아리 활동...선배이주민 만나 인터뷰 진행



지난해 5월부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꿈빛학교’는 주승룡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영상 동아리 활동을 진행했다. 이 동아리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외국인들과 직접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학생들이 직접 질문을 만들고, 만남을 약속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배우고, 자신들의 시야를 넓히며 성장하는 기회를 가졌다. 7월에는 처음으로 1세대 한국 거주 러시아 할머니를 인터뷰했다.

위성철 학생이 100세인 이 할머니를 인터뷰하고, 블라디와 로만 학생이 촬영을 맡았다. 할머니는 한국 처음에 온 이유와

초기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학생들은 러시아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도 가졌다.

두 번째 인터뷰는 위성철 학생과 전기원 학생이 주도했으며,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의 경희대학교 스포츠건강학과를 졸업한 선배를 만났다. 이 선배는 유학생 중 느낀 어려움과 배운 점을 공유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조언을 했다. 그는 “성인이 되어 독립하면 더 이상 자신을 책임져줄 사람이 없다. 스스로 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해 청소년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이언희 학생은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근무 중인 중국어 상담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해, 해당 업무와 언어 통역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 배웠다. 또한, 모스크에서 온 아담 학생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요르단에서 온 로아와 함께 한국에 거주하는 난민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주민들의 현실을 더욱 잘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영상 동아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진로 선택과 삶의 방향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학생들이 직접 진행한 인터뷰 영상들은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해당 영상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从今年五月开始,安山市全球青少年中心的“梦光学校”与朱胜龙老师及学生们共同发起的视频社团活动,旨在让移民背景的青少年们与在韩国长期居住的外国人直接接触,听取他们的故事。学生们亲自提问,约定见面并进行采访,记录这些有趣的经历。通过这一过程,学生们不仅学习了不同人的生活故事,还拓宽了自己的视野,并获得了成长的机会。7月,第一次采访在朱胜龙老师认识的一位100岁俄罗斯老奶奶家中进行。学生魏圣哲负责采访,别的同学负责拍摄。老奶奶讲述了她来到韩国的原因以及初到韩国后的经历,学生们还体验了俄罗斯传统的美食,感受到

了特别的文化交流。第二次采访由魏圣哲和田佳园学生主导,他们采访了一位在中国高中毕业后,来到韩国并毕业于庆熙大学体育健康系、目前在工作的学长。学长分享自己在韩国的留学经历、困难以及收获,并向即将高中毕业、步入成年阶段的移民背景青少年们提出了重要的建议。他表示:“当你长大成人,独立后,不会再有人为你负责。自己做出的决定,自己需要承担责任。”这番话给了学生们极大的启发,对许多青少年也有很大的帮助。李彦熙同学在10月联系了安山市外籍居民服务中心的中文咨询老师,采访了她的工作内容,并了解了如何成为一名语言翻译的职业路径。同时,来自摩洛哥的阿达姆学生与来自约旦的罗阿同学一起采访了在韩国居住的难民,进一步了解了移民的现实生活。

这个视频社团的宗旨是通过采访来自各个领域的人物,帮助移民背景青少年们在职业选择和人生方向上获得灵感。学生们亲自完成的采访视频可以在安山市全球青少年中心的官网上观看,希望这些视频能帮助移民背景青少年们规划更加美好的未来。

위성철 경기다문화뉴스 이주민기자단

이주민 기자단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꿈빛학교’, 딥페이크 위험성 알리는 예방 수업 진행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위탁형 대안학교인 ‘꿈빛학교’는 지난 10월 한국어 수업시간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에 관해서 다양한 활동을 실시했다.

최근 한국 학교에서는 딥페이크 관련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과 교사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한 고등학생이 자신의 동창과 교사들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학생들은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지만 자신의 원적 학교에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청소년센터의 한 학생은 자신의 친구도 딥페이크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

고 이야기했다. 이에 꿈빛학교에서는 딥페이크사건에 대한 토론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에게 최근 일어나는 딥페이크사건을 설명해 주고, 학생들이 스스로 더 딥페이크를 알아가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딥페이크의 작동방식, 딥페이크의 장단점, 딥페이크의 법적문제, 예방방법에 대해서 조사했으며 학생 스스로가 친구들에게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글로벌청소년센터의 또 다른 학생은 선생님의 사진을 이용해 웃긴 립싱크 영상을 만들며, 딥페이크 기술이 얼마나 간편하게 제작될 수 있는지 실감했다.

학생들은 합성 영상이 생각보다 실제 처럼 보이는데 놀랐으며,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을 직접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센터의 학생들은 모두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깝고, 언제든지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라는 걸 명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학생들은 딥페이크를 막을 것을 다짐하는 문구를 작성하고, 반에 전시하며 예방을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

딥페이크 문제는 여전히 법적, 기술적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더 많은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법적 보완과 기술적 대응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上个月10月,在安山市全球青少年中心的委托型替代学校“梦想之光学校”中,韩国语课上围绕最近问题频发的“深度伪造”(Deepfake)技术展开了多种活动。最近,韩国学校里持续发生与深度伪造相关的事件,学生和教师因此遭受了严重的伤害。最近安山市发生的深度伪造事件震惊了整个社区。一名高中生将同学和教师的脸合成到色情视频中,并以此牟利,因而被逮捕。虽然全球青少年中心没有发生类似事件,但学生们表示在自己原来的学校里频繁发生深度伪造事件。

全球青少年中心的一名学生表示,她的朋友们也因深度伪造受到了伤害。因此,梦想之光学校开展了关于深度伪造的讨论课。课堂上,老师向学生们介绍了近期发生的深度伪造事件,并鼓励学生们自行深入了解。学生们

调查了深度伪造的工作原理、优缺点、法律问题以及预防措施,并以小组讨论和展示的形式相互交流。

学生“朴语政”用老师的照片制作了搞笑的对口型视频,并亲身感受到深度伪造技术的制作过程是多么简便。学生们看到这些合成视频与真实视频几乎无异,感到震惊,同时也意识到这种技术的危险性。随后,学生“边惠英”展示了韩国国内发生的一些深度伪造案例,并提到了自己高中时发生的相关事件。这让所有人意识到,这类事件离自己并不遥远,随时可能发生在周围,且后果严重。

最后,学生们完成了“对我而言,深度伪造是__,为了防止深度伪造的危害,我将__”的句子,并制作了反对深度伪造的宣传活动,展示在班级内。通过这次活动,学生们对深度伪造问题的危机感有所提升,并承诺为预防这种现象而努力。深度伪造问题的法律和技术应对目前仍不完善。

因此,需要通过更多的教育和宣传活动,让学生们意识到该问题的严重性,并采取预防措施。同时,法律的进一步完善与技术的持续进步也是解决此问题的必要条件。

위성철 경기다문화뉴스 이주민기자단

'2024 Immigrant Residence Status and Employment Survey Results' Foreign workers exceed 1 million...88% of foreigners earn more than 2 million won per month

As the number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has surpassed 1.56 million, the largest number ever,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working in Korea has also surpassed 1 million for the first time.

In addition, it was revealed that about half of the foreign workers have a monthly salary in the 2 million won range.

Foreign workers who came to Korea to work

Statistics Korea recently released the '2024 Immigrant Residence Status and Employment Survey Results' and announced that as of May this year, the number of foreigners aged 15 or older residing in Korea was 1,561,000, an increase of 9.1% (130,000) from last year. This is the largest number ever.

The reason for the sharp increase in the number of employed people is

that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who received a 'Non-professional Employment (E-9) Visa' this year increased by 34,000 (12.6%) from a year ago to 302,000.

The average monthly wage level they receive is 2 million won or more but less than 3 million won, with 489,000 people (51.2%), followed by 3 million won or more (37.1%) and 1 million won or more but less than 2 million won (8.4%). By industry, mining and manufacturing were the most with 461,000 people, followed by wholesale/retail/accommodation/food service (191,000 people) and business/individual/public service (144,000 people) with over 100,000 people.

Marriage immigrants and overseas Koreans are also at an all-time high

Among the 1,561,000 resident foreigners, the number of overseas

Koreans, marriage immigrants, and foreign students is the highest ever.

The number of marriage immigrants who married Koreans increased by 1.7% in one year to 122,000, and the number of overseas Koreans, including ethnic Koreans of China and Koryo people, increased by 4.1% from the previous year to 402,000.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also increased by 6.4% from last year to 200,000.

The number of foreign nationals with permanent residency in Korea, including Chinese and Vietnamese, increased by 7.6% in one year to 141,000. This is more than double the 65,000 in 2012. 62.1% of foreign nationals with permanent residency said they plan to acquire Korean citizenship in the future.

High life satisfaction but language is a problem

When asked about the satisfaction of foreigners living in Korea, 84.3% responded that they were 'satisfied', which is a 3.9%p increase from the previous quarter.

The most common difficulty in living in Korea was none (34.7%), followed by language problems (29.8%), loneliness (13.0%), and economic difficulties (9.3%). Among these, language problems increased by 5.1% compared to last year, and loneliness decreased by 3.9%. When asked, "Have you experienced discrimination in the past year?" 17.4% answered, "Yes." The most common reason for discrimination was "country of origin" at 54.5%, followed by Korean language ability (31.2%) and appearance (9.1%).

<한글 기사 1면>

파과야스토리

Число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превысило 1 миллион... 88% из них зарабатывают более 2 миллионов вон в месяц 이민자 체류실태 안내

Число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Корее,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превысило 1,56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Также впервые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в стране достигло 1 миллиона. При этом почти половина иностранных соотрудников получают зарплату в диапазоне 2-3 миллионов вон в месяц.

Иностранные работники, приехавшие на заработки в Корею

Согласно недавно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данным «Состояние проживания и занятости иммигрантов в 2024 году» от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Кореи,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май 2024 года в стране проживает 1,561 млн иностранцев старше 15 лет, что на 9,1% (или 130 тысяч)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Это рекордный показатель.

Рост числа трудоустроен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объясняется увеличением выданных виз категории E-9 (не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рабочие). В 2024 году таких работников стало 302 тысячи, что на

12,6% (34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Что касается уровня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больше всего иностранных сотрудников (51,2% или 489 тысяч человек) получают от 2 до 3 миллионов вон в месяц. За ними следуют те, кто зарабатывает более 3 миллионов вон (37,1%), и работники с зарплатой от 1 до 2 миллионов вон (8,4%).

Браки с корейцами и рост числа убежденных корейцев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отрасли, больше всего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занято в горнодобывающей и об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461 тысяча человек. Далее следуют оптовая и розничная торговля, гостиницы и рестораны (191 тысяча человек), а также бизнес-услуги, частный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ервис (144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Из общего числа проживающих иностранцев (1,561 млн) также зафиксирован рекордный рост количества мигрантов по браку,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ских общин.

Число мигрантов по браку, то есть и иностранцев, вступивших в брак с корейскими гражданами, достигло 122 тысяч человек, что на 1,7%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редставители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ских общин, включая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из Китая и бывшего СССР, составили 402 тысячи человек, что на 4,1% бол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также увеличилось на 6,4% и достигло 200 тысяч человек.

Число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с видом на жительство из таких стран, как Китай и Вьетнам, составило 141 тысяч человек, что на 7,6% бол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Это больше чем в два раза превышает показатель 2012 года, когда обладателей вида на жительство было 65 тысяч. Сред и иностранцев с видом на жительство

62,1% заявили, что планируют получить гражданство Кореи в будущем.

Уровень жизни и проблемы адаптации

На вопрос о степени удовлетворенности жизнью в Корее 84,3% иностранцев ответили, что довольны. Это на 3,9%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иболе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ми трудностями в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оказались языковой барьер (29,8%) и чувство одиночества (13,0%). При этом 34,7% респондентов сообщили, что не испытывают каких-либо трудностей.

На вопрос о том, сталкивались ли они с дискриминацией за последний год, 17,4% иностранцев ответили утвердительно. Среди причин дискриминации чаще всего упоминались страна происхождения (54,5%), уровень владения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31,2%) и внешность (9,1%).

<한글 기사 1면>

파과야스토리

한국 명문대에서 학사 학위 받고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족의 꿈 이룬다!

경희사이버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온라인 학사 학위 과정 운영...학비도 저렴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꿈은 뭘까요? 안정적인 비자를 가지고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예요. 너무 간단하고 분명한 이주민들의 소망에 한국 정부도 최근 새로운 비자 정책을 발표하며 화답했어요. 하지만 E-7-4 비자 취득을 위한 K-point 정책과 F-2-R 비자 취득을 위한 지역특화비자 정책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쉽게 도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공장이나 식당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다문화가족은 어떤가요? 보다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 적응과 취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한국어 능력 향상과 대학교 졸업 학력이예요. 하지만 이주민이 회사 일과 한국어 공부를 함께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더구나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러한 2가지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학사 학위 프로그램이 탄생했어요!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 가능해?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는 한국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자율학부를 신설하고 외국인주민을 위해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대학교는 모든 수업과 시험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가능해요. 학비는 어떨까요? 한국의 다른 대학교들의 연간 학비가 700만~900만원인 것에 비해 경희사이버대학교 글로벌자율학부는 모든 학생에게 50% 장학금을 부여해 연간 학비가 151만2천원에 불과해요. 또한 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장학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먼저 무전공으로 이 대학교에 입학하면 1학년 과정은 대학 생활 적응과 기초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배워요. 주요 교과목으로는 대학한국어1과 2, 한국사회와 대학 이해, 전공탐색과 학습전략, 글로벌 리더십

등이예요. 학생들은 진짜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기 전, 진로 설계와 다양한 전공 탐색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설정할 수 있어요. 이후 2~4학년에는 IT, 전자 정보, 경영, 관광, 한국어 등 다양한 전공을 선택하여 심화 학습을 진행할 수 있어요.

한국어를 못하는데 어떡해?

경희사이버대학교는 한국어를 못해도 입학할 수 있어요! 한국어 실력과 상관 없이 합격을 통보 받으면 입학 전에 이 대학교 한국어센터에서 디딤돌 과정 즉, 한국어연수를 받을 수 있어요. 6학점의 학점도 인정되기 때문에 좋아요. 입학 후에는 대학한국어 수업과 한국어연수 과정을 번갈아 들으며 실력을 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어 수업을 따라가려면 실질적으로 토픽 3급 이상의 실력이 필요해요. 만약 학생이 토픽 4급을 취득하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어요.

대학교 졸업하면 뭐가 좋아?

그럼 경희사이버대학교를 졸업하면 한국에서 어떤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경희사이버대학교는 한국의 명문사학인 경희대학교가 모체이고 당연히 4년제 학위를 인정받아요. 특히 학사 학위를 인정받으면 E-7-4 비자를 취득하는데 점수 20점을 얻을 수 있고 한국어 실력도 대학교 졸업 과정에서 토픽4급은 무난하게 취득할 수 있어서 120점을 추가로 얻을 수 있어요. E-7-4 비자 취득은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지요.

요즘 외국인근로자에게 관심이 많은 지역특화비자의 경우에도 한국 대학교 졸업장을 가진 외국인은 가점을 받아 매우 유리해요.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베트남 출신 이지은 씨는 “한국의 대학교에서 공부하기 전에는 저 스스로 한국 사회에 속할 수 없다고 느꼈다.”며 “하지만 대학 졸업 후에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특히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장학금 혜택과 의료비 감면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원래 학비가 저렴하지만 글로벌자율학부 학생들은 입시장학, 생활장학, 성적장학 등 다양한 장학 제도를 통해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최근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는 신입생과 편입생의 97.3%가 장학 혜택을 받았으며, 특히 글로벌자율학부 입학생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50%의 장학 혜택을 제공받아요. 또한, 경희사이버대학교는 학생들에게 경희대학교병원 및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의 10% 의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이주민들에게 의료 번역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해요. 경희사이버대학교의 글로벌자율학부는 한국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융합교육을 제공해 회사 사장님과 동료들이 인정하는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어요.

입학은 어떻게 할 수 있어?

경희사이버대학교 글로벌자율학부는 2025학년도 1학기 1차 신입생 모집을 2025년 1월 14일까지 진행해요. 2차 모집은 2월 14일까지예요. 원서접수는 경희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go.khcu.ac.kr)에 PC 또는 모바일로 접속해 입학원서 작성, 전형자료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하면 돼요.

경희사이버대학교 글로벌자율학부 서진숙 교수는 “우리는 이주민과 외국인 학생들이 학문과 실무 역량을 키워 글로벌 사회에서 당당히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공부하면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go.khcu.ac.kr) 또는 입학상담전화(02-959-0000)로 확인해 보세요.

(중국어 28면, 일본어 17면) 송하성 기자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1666-1234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1644-7111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599-1700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031-599-1770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031-364-570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글로벌미션센터 070-8600-8040 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 031-413-3106 원곡보건지소(외국인 진료) 031-481-3606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031-481-266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여러가지 어려움 극복하며 한국어 공부에 최선을 다했어요”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한국어 교육 수료식...한국어 배우며 꿈 실현 위해 노력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2시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한국어교육 교육생과 가족, 강사 등 한국어 교육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료식은 안산시가 올해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교육생의 수료를 축하함으로써 이들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어 교육은 외국인 주민들의 사회적 참여와 통합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4년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직영 한국어 ▲위탁 한국어 ▲결혼이민자 한국어가 운영됐으며, 총 4개 과정에서 4494명의 한국어 교육 수료자가 배출됐다.

이날 행사는 다문화.비다문화 아동으로 구성된 세계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과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

나 등 각국 청년들로 구성된 빅핑크스(k-pop dance)의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2024년 한국어교육 활동 상영 시청, 2024년 주요 성과보고와 함께 교육 유공자 표창, 수료증 수여, 강사 및 교육생 소감 발표, 축하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국어교육을 수강 중인 외국인 주민들은 한국어교육 활동 영상을 통해 “학교 입학해 즐거운 학교생활 하고 싶어요”, “아이 공부 도와주고 싶어요.”, “한국 국적 취득해 가족들과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통역사가 되어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자격증 따서 베이커리 카페 열고 싶어요.”, “한국어 선생님 되고 싶고 통역일 하고 싶어요” 등의 꿈을 전했다.

강사 및 교육생 소감 발표에서는 현재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강사로 활동 중인 진보영씨가 16년 전 우크라이나에서 언어와 문화가 달라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앞으로 많은 이주민이

안산에서의 추억으로 미래를 꿈꾸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데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산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라며 이주민과 함께하는 안산을 위해 애써온 안산시외국인지원본부에 감사를 전했다. 한국어 교육생인 베트남 출신 웬티뚜짱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진학을 못 했고 취업도 어려워 한국에 와서 한국어 공부를 하며 여러 나라 친구들과 문화교류를 할 수 있었다”라며 “한국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한국에서 제 꿈을 펼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경혜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올해 한국어 교육에 성실히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축하드린다. 언어교육이 한국 생활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국인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안산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에 따른 주의 당부...“이주민도 백신 접종해요”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0일 0시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시민들의 개인위생 수칙 실천과 고위험군 예방 접종을 당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의원급 표본감시 결과, 12.8~12.14. 기간 중 외래환자 1천 명당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는 13.6명으로,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인 8.6명을 초과했다. 최근 4주간 환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13~18세에서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통해 전파가 이뤄진다. 감염되는 경우 1~4일(평균 2일) 후 발열이나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이번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형은 A형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해 백신 접종으로 예방 효과가 크다. 시는 이와 관련해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의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예방 접

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았다면 해열 후 24시간이 경과해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해열제를 투약한 경우 마지막 투약 시점부터 2일(48시간)까지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겨울철에는 호흡기 감염병에 취약해지고 유행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백신 접종을 서두르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족행복 끌어올려요~”

파주시가족센터, 가족봉사단 및 1인가구 20대 여성·3세대 위한 프로그램 운영해

다가치 가족봉사단

파주시가족센터(센터장 권한대행 이사숙)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요구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 다(多)가치 가족봉사단을 운영했다.

2023년 파주시가족센터는 시민 9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주민 요구도 조사에서 가족단위 참여 프로그램 중 가족봉사단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공예 기술을 배우고, 습득한 기술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다양한 가족봉사단을 운영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가족봉사단은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봉사자로서의 소양 교육, ESG 교육, 풍선아트 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족봉사단은 정기적

인 봉사활동을 통해 가족관계를 증진하고 가족건강성을 향상하며 봉사단 참여를 통해 습득한 공예기술을 지역사회에 재능기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나눔의 기쁨을 경험했다. 파주시가족센터는 지속적인 봉사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내 다문화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소통 및 정서교류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20대 여성 힐링

파주시가족센터는 지난 11월 23일, ‘파주시 1인가구 20대 여성 10인’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아로마 테라피(교육)’, ▲‘도예 체험(크리스마스 에디션)’ 등이 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참여자 모두 ‘1인가구 20대 여성’으로 구성되어 사회적 관계망 조성 및 소통의 시간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스스로 본인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스트레스 해소 및 힐링에 도움이 되었다.”라며 만족해했다.

3세대 농장 체험

파주시가족센터는 지난 11월 16일에도 ‘3세대 농장 체험’을 진행했다. ‘3세대 농장 체험’은 △사과 피자 △사과 동치미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프로그램에서 3세대 참가자들은 요리를 함께 완성하며 세대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체험에 참여한 가족들은 “3세대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더 많아지면 좋겠다. 3세대가 돈독해진 점이 너무 좋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파주시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들의 가족 응집력과 친밀감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파주시가족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공공심야약국 확대 시민편의 증진

파주시, 2025년 운영시간 변경 및 지정약국 확대



파주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이 21시부터 24시까지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심야 지정약국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됐다. 이는 지역 내 약국 분포와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지역주민들이 심야시간에도 더욱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에 전문 약사에게 복약지도를 받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약국으로,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65일 운영된다. 공공심야약국은 의약품

품 구입뿐만 아니라 의약품 이용에 관한 전화 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파주시 심야 약국 현황은 파주시청 누리집(www.paju.go.kr), 휴일지킴이약국 누리집(pharm114.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야약국은 ▲가까운약국(문산읍/031-952-5700) ▲베스트소망약국(금촌동/031-943-2729) ▲용화당약국(파주읍/031-953-8792) ▲범진약국(탄현면/031-945-1585) ▲유일약국(범원읍/031-958-6279) 총 5곳이다.

한편 파주시가 공공심야약국 이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5%가 ‘의약품 구매 및 이용에 만족한다’고 답해 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시민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확인됐다. 또한, 응답자의 84%가 심야약국 이용 도착 시간이 ‘30분 이내’라고 답변해,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편리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이번 운영시간 변경과 지정약국 확대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심야에도 편리하게 공공심야약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운정호수공원, 소치호수 야경으로 밤을 물들이다

파주시는 지난 26일, 운정호수공원 소치호수 주변에 경관조명을 새롭게 설치했다.

운정호수공원은 파주시를 대표하는 명소로, 특히 소치호수는 매년 불꽃놀이 축제와 다양한 문화행사로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다.

파주시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소치호수 주변에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이번 경관조명 설치의 자연경관과 서로 조화를 이뤄 아름다운 야경을 선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기존에 조명이 부족했던 어두운 구간에 ‘스텝등’과 ‘지중등’을 새롭게 설치해 야간 보행 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팔각정 주변에는 고유의 단청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지중등’을 설치해, 조명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지는 야경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운정호수공원은 시민들에게 소중한 휴식처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과 보수를 통해 더욱 품격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시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송하성 기자

비전문 외국인력 20만 7천명 도입한다

법무부, 고용허가(E-9) 13만명...계절근로(E-8) 7만5천명



한국 정부는 지난 12월 20일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약 20만 7천명 도입하기로 결정했어요.

도입 쿼터(총량)는 현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규모의 상한(ceiling)을 설정한 것으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8~E-10)의 도입쿼터는 총 20만 7천명 수준이에요.

비자별로 살펴보면,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전문인

력(E-9)의 경우 인력수급과 경기전망 등 대외여건과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올해보다 3만 5천명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했어요.

계절근로자(E-8)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및 농어촌 인구감소를 고려하여 올해보다 7천명 증가한 7만 5천명으로 도입규모를 결정했어요.

다만, 총 정원제로 운영돼 올해 2만3300명 수준인 선원취업(E-10)은 내년에는 추가 입국자 수가 2,100명 수준으로 예상돼요

법무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부처는 이날 논의한 비전문 외국인력의 총량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2025년 비자별 도입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에요.

한국 정부는 최근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의 체계적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져 도입 인력을 산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러시아어 우측, 영어 하단>

파파야스토리

В 2025 году Южная Корея примет 207 000 не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20 декабря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вело заседание Совета по инте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е в отношении иностранной рабочей силы, где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принять в 2025 году около 207 000 не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Фото: Центр и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города Кваньян>.

Квота — это установленный верхний предел числа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которые могут быть привлечены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потребностей рынка труда.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общий лимит для не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ой рабочей силы (визы E-8~E-10) составит 207 000 человек.

Распределение по визам:Для рабочих, привлекаемых по программе трудовых разрешений (E-9), с учётом спроса, прогноза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и результатов опросов среди работодателей и министерств, квота была сокращена на 35 000 человек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екущим годом и установлена на уровне 130 000 человек.

Для сезонных рабочих (E-8), с учётом результатов опросов местных органов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и сокращения населения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квота увеличена на 7 000 человек и составит 75 000 человек.

Для рабочих на судах (E-10), чья квота в этом году составляла около 23 300 человек,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ожидается прибытие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2 100 человек.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уда и Министерство морских дел и рыболовства на основе установленных квот окончательно утвердят план распределения 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рабочей силы по визам на 2025 год после согласования с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ми ведомствами.

План управления иностранной рабочей силой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лагает значительные усилия для установления точных квот с целью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нехватки рабочей силы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Возрастающая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 систематическом и интегрированном управлении привлечением и иностранной рабочей силы требует тщательной координации и планирования.

<한글 기사 좌측 상단>

파파야스토리

법무부, 207,000명 E-9 외국인력 도입 확정

The Korean government held a meeting of the Foreign Workforce Integration Policy Council on December 20th and decided to introduce approximately 207,000 non-professional foreign workers by 2025.

The introduction quota (total amount) sets an upper limit (ceiling) for the number of personnel so that foreign workers can be introduced and utilized at any time according to on-site demand. Next year's introduction quota for non-professional foreign workers (E-8~E-10) is approximately 207,000 people.

Looking at each visa, for non-professional workers (E-9)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the number was decided to be 130,000, a decrease of 35,000 from last year, taking into account external conditions such as supply and demand for manpower and economic outlook, as well as the results of a demand survey by employers and related ministries.

scale of introduction was decided to be 75,000,

which is 7,000 more than this year, considering the results of a demand survey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decrease in the rural and fishing population. However, the number of additional entrants to the seafarer employment (E-10), which is operated under a total quota system and is about 23,300 this year, is expected to be about 2,100 next year.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other relevant ministries will finalize the scale of introduction by visa type in 2025 and establish an operational plan based on the total number of non-professional foreign workers discussed that day through consultations with relevant organizations.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been putting a lot of effort into calculating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to be introduced, as the need for systematic and integrated management of foreign workers has increased to resolve the labor shortage in industrial sites.

<한글 기사 상단>

파파야스토리



- 파주시청 031-940-4114 파주시가족센터 031-949-9164 한국다문화복지협회 031-941-1955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고양출장소 031-960-9310
- 파주성폭력상담소 031-946-2096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949-8219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Người nước ngoài bất hợp pháp tự nguyện về nước trong thời gian ân xá, và lý do có thể tái nhập cảnh sau một năm **미등록 외국인 자진출국기간 연장**

Bộ Tư pháp đã quyết định sẽ gia hạn 'Thời gian ân xá tự nguyện về nước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bất hợp pháp', dự kiến áp dụng cho đến ngày 30 tháng 11, thêm hai tháng cho đến ngày 31 tháng 1 năm 2025.

Việc gia hạn này nhằm tạo điều kiện thuận lợi hơn cho nhiều người nước ngoài bất hợp pháp tự nguyện về nước đang gặp khó khăn trong việc đặt vé máy bay về nước do những kỳ nghỉ cuối năm và đầu năm mới.

Người nước ngoài bất hợp pháp tự nguyện về nước trong thời gian ân xá có thể được ▲ miễn tiền phạt theo thời gian cư trú bất hợp pháp và ▲ miễn hạn chế nhập cảnh.

Tuy nhiên,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lưu trú trái phép từ ngày 30/9 năm nay, người nhập cư trái phép, người sử dụng hộ chiếu giả, người phạm tội và người không chấp hành lệnh xuất cảnh đều bị loại trừ trong đợt ân xá này.

Miễn hạn chế nhập cảnh, có đúng không?

Nhiều người nước ngoài thắc mắc liệu người

nước ngoài tự nguyện xuất cảnh trong thời gian ân xá có thực sự được hưởng quyền lợi miễn hạn chế nhập cảnh hay không. Đúng là việc miễn hạn chế nhập cảnh là có thật. Nhưng điều này có nghĩa là không nằm trong danh sách hạn chế nhập cảnh của Bộ Tư pháp.

Khi một người nước ngoài bất hợp pháp tự nguyện xuất cảnh và nộp đơn xin cấp visa tại đại sứ quán Hàn Quốc ở nước sở tại, bộ phận phụ trách cấp thị thực vẫn có thể xác nhận thông tin cư trú bất hợp pháp của người đó tại Hàn Quốc mặc dù tên của người đó không được liệt kê trong mục danh sách hạn chế nhập cảnh. Vì vậy, lãnh sự quán phụ trách visa sẽ có thể từ chối cấp visa.

Sẽ bị cấm nhập cảnh trong bao nhiêu năm?

Ngay cả khi người nước ngoài bất hợp pháp tự nguyện xuất cảnh, họ vẫn có thể khó khăn trong việc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trong 5 năm. Nhiều người nước ngoài hỏi có cách nào khác không, nhưng nếu vì lý do nhân đạo thì có thể nhập cảnh sớm hơn.

Ví dụ, nếu trường hợp người chồng đến Hàn Quốc cùng vợ đang học cao học ở Hàn Quốc, sau đó trở thành người bất hợp pháp và tự nguyện về nước, thì người chồng sẽ khó có thể quay lại Hàn Quốc trong vòng 5 năm. Tuy nhiên, nếu trước khi người chồng tự nguyện về nước mà người vợ mang thai, và trong thời gian người chồng về nước và người vợ sinh con và phải tự mình đi học, nuôi con. Nên trong trường hợp này, được xem là có lý do nhân đạo.

Tất nhiên, trong trường hợp này cũng vậy, người chồng ban đầu đã bị từ chối cấp visa. Nhưng sau đó người vợ đã không bỏ cuộc và nộp đơn khiếu nại lên Ủy ban Chống Tham nhũng và Dân quyền.

Ủy ban Chống tham nhũng và Dân quyền đánh giá việc cấp visa cho người chồng là phù hợp nên đã người chồng đã có thể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chỉ sau một năm tự nguyện về nước. Trừ khi có những lý do nhân đạo rõ ràng và xác đáng như trên, nếu không trong vòng 5 năm sẽ rất khó để có thể quay lại Hàn Quốc.

<한글 기사 31면>

파파야스토리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ซึ่ง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ในช่วงระยะเวลาเดินทางออก โดยสมัครใจพิเศษ, เหตุผลที่กลับมาใน รอบ 1 ปี **자진 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 1년 만에 돌아온 이유**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ตัดสินใจขยายเวลา "ระยะเวลา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โดยสมัครใจพิเศษ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 ซึ่งมีกำหนดเปิดให้บริการจนถึงวันที่ 30 พฤศจิกายน เพิ่มอีก 2 เดือนจนถึงวันที่ 31 มกราคม 2025

การดำเนินการขยายระยะเวลาในครั้งนี้เพื่อให้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มีโอกาส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ได้ด้วยตนเองมากขึ้น และพิจารณาสถานการณ์ที่การจองตั๋วเครื่องบินกลับประเทศเป็นเรื่องยาก เนื่องจากวันหยุดสิ้นปีและวันหยุดปีใหม่เป็นต้น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ที่สมัครใจ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ภายในระยะเวลา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โดยสมัครใจพิเศษ จะได้รับสิทธิประโยชน์ต่างๆ เช่น ▲ การยกเว้นค่าปรับสำหรับการพำนัก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 และ ▲ การยกเว้นจากข้อจำกัดการเข้าประเทศ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หลังจากวันที่ 30 กันยายนนี้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และผู้ลักลอบเข้าเมืองโดยผิดกฎหมาย, ผู้ถือหนังสือเดินทางปลอม, ผู้กระทำความผิดทางอาญา และผู้ที่ไม่ปฏิบัติตามคำสั่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 จะไม่รวมอยู่ด้วย

ได้รับการยกเว้นจากข้อจำกัดการเข้าประเทศ, จริงหรือไม่?

ไม่?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จำนวนมากสงสัยว่า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ในช่วงระยะเวลา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โดยสมัครใจพิเศษนั้นจะได้

รับผลประโยชน์จากการยกเว้นจากข้อจำกัดการเข้าประเทศจริงหรือไม่ ในความเป็นความจริงแล้วเป็นเรื่องจริงที่ได้รับการยกเว้นจากข้อจำกัดการเข้าประเทศ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สิ่งนี้เป็นเพียงเพราะไม่อยู่ในรายชื่อข้อจำกัดการเข้าประเทศของ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เมื่อ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ที่สมัครใจออกจากเกาหลีไปยื่นขอวีซ่าที่สถานทูตเกาหลีเพื่อเดินทางกลับเกาหลีจากประเทศบ้านเกิด เจ้าหน้าที่กงสุลที่รับผิดชอบวีซ่าสามารถตรวจสอบได้ว่าการพำนัก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ในเกาหลียังคงอยู่แม้จะไม่มีชื่ออยู่ในรายการก็ตาม ดังนั้นเจ้าหน้าที่กงสุลที่รับผิดชอบวีซ่าจะปฏิเสธการออกวีซ่า

จะถูกห้ามเข้าประเทศกี่ปี?

แม้ว่า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จะสมัครใจ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 แต่โดยทั่วไปแล้วพวกเขาจะไม่ได้รับอนุญาตให้เข้าเกาหลีเป็นเวลา 5 ปี มีชาวต่างชาติจำนวนมากที่ถามว่าไม่มีทางอื่นเลยหรือ แต่หากมี

เหตุผลด้านมนุษยธรรมก็สามารถเข้าประเทศได้เร็วขึ้น ตัวอย่างเช่น หากสามีที่มาจากเกาหลีกับภรรยาที่กำลังศึกษาระดับบัณฑิตศึกษาในเกาหลีกลายเป็นผู้พำนัก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และสมัครใจ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ก็เป็นเรื่องยากสำหรับเขาที่จะกลับเข้าประเทศอีกครั้งภายใน 5 ปี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ก่อนที่สามีจะ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โดยสมัครใจ ภรรยาตั้งท้องและในขณะที่สามีกลับประเทศบ้านเกิด ภรรยาก็ได้ให้กำเนิดบุตร และต้องเรียนพร้อมทั้งเลี้ยงดูลูกด้วยตัวเอง ในกรณีนี้ ใครๆก็มองว่าเป็นเหตุผลด้านมนุษยธรรม.

แน่นอนว่าในกรณีนี้เช่นกัน วีซ่าของสามีจะถูกปฏิเสธในตอนแรก แต่ภรรยาที่ไม่ยอมแพ้และยื่นเรื่องร้องเรียนต่อ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ทุจริตและสิทธิพลเมือง

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ต่อต้านการทุจริตและสิทธิพลเมืองพิจารณาเห็นสมควรที่จะออกวีซ่า และในความเป็นจริงมีกรณีที่บุคคลเข้าเกาหลีหลังจาก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 1 ปี การกลับเข้าเกาหลีอีกครั้งภายใน 5 ปี นั้นยังคงเป็นเรื่องยากเว้นแต่จะมีเหตุผลด้านมนุษยธรรมที่ชัดเจนและสมเหตุสมผล

<한글 기사 31면>

파파야스토리

대한민국
정착백브리핑

교통비 아끼는 방법

K-패스

농촌투어패스

인구감소지역 반값 기차표

📌 'K-패스'로 대중교통비 알뜰하게 환급 받기

혜택은?

일반: 20% 적립
 청년: 만 19 ~ 34세는 30% 적립
 저소득: 53% 적립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지급됩니다.

이용방법

대중교통 이용 시 적립되며, 지자체 주민등록상 등록된 만 19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K-패스 카드 발급 후, 누리집 혹은 앱에서 회원가입하세요.

* 다만, 시외(고속)버스, KTX, SRT, 공항버스 등 별도 발급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미포함

📌 '농촌투어패스'로 농촌으로 떠날 때 드는 교통비 지원받기

혜택은?

① 버스만 이용할 경우
 교통비의 10%를 티머니고 마일리지로 적립 가능
 ② 농촌투어패스 상품도 함께 이용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교통비를 1만 원 한도 내 최대 30% 지원

이용방법

'티머니고' 앱 농촌투어패스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여행 선택 > 원하는 날짜 선택 > 농촌투어패스 교통 혜택 할인쿠폰 적용하고 할인받기

📌 '반값 기차표'로 여유로운 국내여행 즐기기

혜택은?

① 10% 할인(왕복 열차)
 ② 관광지 곳곳에 부착된 QR코드 인증하면 40% 상당 할인쿠폰 증정 (매월 익월 지급, 유효기간 1년)
 최대 50% 할인

이용방법

코레일 누리집 혹은 코레일톡 앱에서 자유여행 > 지역사랑 철도여행에서 예매

* 지역사랑 철도여행(반값 기차표)은 태백, 삼척 등 23곳 인구감소지역으로 여행할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자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철도공사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삶

파주시가족센터, 스트레스 해소사업 진행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가정이 많아졌다. 특히 파주시는 2022년 대비 2023년 반려동물 소유주가 14.2% 증가하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족이 더 많아졌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며, 이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파주시가족센터(센터장 권한대행 이사숙)에서는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반려동물 가족’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측정 및 해소교육 ▲펫아로마테라피 ▲펫푸드&베이커리로 스트레스 상황과 자기이해를 가능하도록 하고, 주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관내 동물보호센터에 참여자들이 만든 수제간식 기부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도 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파주시가족센터 덕분에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힐링 되는 시간을 보냈다.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어서 더 좋았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지은 기자

초기 결혼이민자 어려움 해결

파주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파주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 단계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번역서비스사업(베트남어)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 통번역서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난민 및 통번역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유관기관이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9:00~18:00)까지 내방 및 전화, 이메일, 출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내용은 입국초기 상담, 국적, 체류 관련 정보 제공

및 사업안내,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출산·양육 지원통역, 전화 및 이메일 통번역 업무, 가족간 의사소통 통역, 행정 및 사법기관, 공공기관 이용시 통번역, 위기상황시 긴급 지원 등이다.

현재 파주시센터에는 베트남어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으며 센터 내 지원되지 않는 언어권은 인근 가족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지원한다.

사업은 연중 상시 진행이며, 통번역서비스를 원하거나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가족센터(031-949-916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파주시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들의 가족 응집력과 친밀감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파주시가족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독자여러분께 알립니다

경기다문화뉴스는 경기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정보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주민 등 구독을 원하는 다문화가족 혹은 구독을 원치 않는 분 그 밖에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기다문화뉴스로 연락해 주세요.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 7층(주네브 썬월드 메디컬동) 8호
- 전화 031-8001-0211 ● 문자 010-2455-9331(변동사유, 이름, 주소 문자가능)

신문발간을 위해 애써주시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산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평택시, 수원시, 화성시, 파주시, 남양주시, 용인시, 광주시, 오산시, 하남시, 구리시, 양평군, 과천시, 연천군, 광명시

경기다문화뉴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4년 한국어 교육 종강식 및 이중언어교실 종강식 진행

“비가 오던 날 사고가 났던 날 / 당신이 나타났을 때 / 내가 안심할 수 있었던 이유를 / 이제야 알았다 / 겨울이 오던 날 몹시 추웠던 날 / 당신이 나타났을 때 / 나의 마음이 따뜻해진 이유를 / 이제야 알았다...(중략) 결혼이민자 ‘필취취’ 씨의 시 ‘이제야 알았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욱제)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부천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2024년 한국어 교육 종강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센터의 2024년 한국어 교

육 수강생 82명과 한국어 강사 8명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다문화가족의 한국어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종강식은 1년간 한국어를 배운 수강생들이 제작한 영상 관람, 문해교실 학생들의 시화전 감상, 반별 수료증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후원자들이 수강생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 증정까지 이어지며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오욱제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모임이 어려워 소소하게만 진행됐던 한국어 교육 종강식을 5년 만에 대규모로 진행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자국을 떠나 꿈을 찾아 한국에서 사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학생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어강사인 김순임씨는 “1년 동안 수고 많았다. 한국어를 더 잘하면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만큼 취업을 위해 중간에 교육을 포기하지 말고 단계를 다 끝내고 사회에 나가길 바란다”라며 2024년 한국어 공부에 열정을 보여준 수강생들에게 응원을 전했다.

수강생 결혼이민자 A씨는 “한 해 동안 교실에서 공부만 하다 보니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모두 만날 수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학생이 한자

리에 모여 너무 반갑고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다.

반별 수료증은 기초심화반, 중급3반, 문해교실, 종합반, 고급반, 기초입문1반, 기초입문2반, 기초입문3반 등 2024년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받은 한국어교육 수강생들에게 전달됐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적응에 가장 중요한 한국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1시에는 이중언어교실 종강식이 같은 장소에서 진행됐다.

김영의 기자





이주민 한국어 교육 발전 및 다양한 국가 간 소통과 화합의 장!

부천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제21회 한국어말하기대회 및 송년의 밤' 성황리 개최

부천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센터장 백선기)는 지난 12월 15일 오후 1시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제21회 한국어말하기대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한국어 솜씨를 뽐내고, 내외국인의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부천시의 지원으로 부천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센터 소속 9개국(미얀마·방글라데시·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중국·캄보디아·필리핀) 공동체 및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운영법인인 (사)부천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임영담 이사장, 조용익

부천시장, 부천시의회 장해영 재정문화위원장, 부천시의회 이종문 의원,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박종현 의장 등 내외빈과 외국인주민 및 후원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임영담 이사장은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거주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국어 교육에 역량을 집중한 센터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외국인주민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20년 넘게 이어 온 한국어말하기 대회가 외국인주민의 한국어 교육 발전과 다양한 국가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익 시장은 “외국인주민들이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언어와 풍습을 배우는 것이라 교육 문제가

잘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최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 불균형 조건을 맞춰 나가고 소외되지 않도록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 뿐 아니라, 나라별 전통 공연과 다문화 음식 만찬 등이 진행돼 다양한 문화를 알리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화합과 소통을 이끈 9개국 공동체와 봉사자 등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한국어말하기대회 본선에서는 11명이 참가해 지난 1년간 배운 한국어 솜씨를 뽐냈다. 베트남, 부르키나파소,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등에서 온 11명의 참가자 중 대상은 ‘한국에 오지 않았더라

면’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베트남 출신의 외국인노동자 팜티응우엣 씨가 차지했다.

센터 관계자는 “매년 개최되는 한국어 말하기대회는 한국어를 통해 다양한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역할을 한다”며 “2025년에도 더욱 풍성한 내용을 담은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사)부천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부천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 한국어 교육, 이종언어 교육 등의 교육사업 및 9개국 공동체 자조모임·문화·체육행사 지원, 무료진료소 운영, 인식개선 사업 등을 수행하며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예인교회·디딤병원 등 지역사회가 부천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이주민에 김장 나눔



부천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센터장 백선기)는 외국인주민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예인교회, 디딤병원과 함께 ‘담그는 기쁨 나누는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가졌다. 예인교회는 사랑이 담긴 김장김치 10kg, 50박스를 11월 26일에 후원해 주



어 외국인주민 50세대에게 전달했다.

예인교회 관계자는 “타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주민이 추운 겨울 건강하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디딤병원에서도 김장김치 5kg, 20박스를 지난 11월 29일 후원했다.

디딤병원 관계자 역시 “외국인주민들이 한국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길 바라며, 추운 겨울을 잘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후원을 통해 받은 김장김치는 총 600kg으로 부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50세대에 전달됐다. 예인교회와 디딤병원은 매년 겨울이면 김장김치를 후원하고 있다. 김장김치 나눔행사는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따뜻한 공동체의 정을 느끼며 화합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김장김치를 받은 외국인주민은 “바쁜 일상에다 물가가 많이

올라 김장김치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도움을 받아 감사하다”며,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부천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관계자는 “김장김치 후원행사는 외국인주민들에게 단순한 음식지원을 넘어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주민과 지역사회가 교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일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韓国の名門大学で学士号を取得し、外国人労働者、多文化家族の夢を叶える！

慶熙サイバー大学、外国人のためのオンライン学士号課程を運営... 学費も格安

韓国に居住する外国人労働者の夢は何でしょうか？安定したビザを持って家族と一緒に滞在しながらお金をたくさん稼ぐことです。

単純で明白な移民たちの願いに、韓国政府も最近新しいビザ政策を発表して応えました。しかし、E-7-4ビザ取得のためのK-point政策とF-2-Rビザ取得のための地域特化ビザ政策にもかかわらず、外国人労働者はなかなか挑戦できていません。

韓国社会にうまく適応できず、工場や食堂で働くしかない多文化家族はどうでしょうか。より良い仕事を望む多文化家族が韓国社会に適応し、就職するためにできることは何でしょうか。

それは、韓国語能力の向上と大学卒業という学歴です。

しかし、移民が会社の仕事と韓国語の勉強を両立させるのは容易ではありません。さらに、韓国で大学を卒業するのは、多くの費用と時間がかかるため、とても難しいです。しかし、この2つの困難を簡単に克服できる学士号プログラムが誕生しました！

韓国で大学卒業、可能？

慶熙サイバー大学(学長ビョン・チャング)は韓国教育部の支援を受けてグローバル自律学部を新設し、外国人住民のために安定的で質の高い教育サービスを提供しています。この大学はすべての授業と試験をオンラインで行うので、仕事をしながら大学を卒業することが可能です。

学費はどうでしょうか？韓国の他の大学の年間学費が700万~900万ウォンであるのに対し、慶熙サイバー大学グローバル自律学部はすべての学生に50%の奨学金を付与して年間学費が151万2千ウォンしかかかりません。

まず、無専攻でこの大学に入学すると、1年次課程は大学生活への適応と基礎力強化を重点的に学びます。

主な科目は大学韓国語1と2、韓国社会と大学理解、専攻探求と学習戦略、グローバルリーダーシップなどです。学生は本当に自分の専攻を選択する前に、進路設計と様々な専攻の探求を通じて自分に合った進路を設定することができます。

その後、2~4年次にはIT、電子情報、経営、観光、韓国語など様々な専

攻を選択して深化学習を進めることができます。

韓国語ができないが、どうすれば？

慶熙サイバー大学は韓国語ができなくても入学することができます！韓国語の実力に関係なく、合格通知が届けば、入学前にこの大学の韓国語センターで飛び石コース、つまり、韓国語研修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単位も6単位が認められます。入学後は、大学の韓国語の授業と韓国語研修コースを交互に受講して実力を伸ばすことができます。卒業する際にも、韓国語能力試験(TOPIK)の要件は要求されません。しかし、韓国語の授業について行くためには、実質的にTOPIK3級以上の実力が必要です。もし学生がTOPIK4級を取得すれば、奨学金受給も可能です。

大学を卒業するとどんなメリットが？

では、慶熙サイバー大学を卒業すると、韓国でどんなメリットがあるのでしょうか？慶熙サイバー大学は韓国の名門校である慶熙大学が母体であり、当然4年制の学位が認められます。

特に学士号が認められれば、E-7-4ビザを取得するのに20点を得ることができ、韓国語の実力も大学卒業過程でTOPIK4級は問題なく取得できるので、120点を追加で得ることができます。E-7-4ビザの取得は難しくありませんね。

最近、外国人労働者に関心が高い地域特化ビザの場合でも、韓国の大学卒業証書を持つ外国人は加点されるのでとても有利です。

韓国で大学を卒業したベトナム出身のイ・ジウンさんは、「韓国の大学で勉強する前は、自分自身が韓国社会に属することができなくて感じていた」とし、「しかし、大学卒業後は多くの韓国人に認められ、韓国社会の一員になったという自信を持つようになりました。特に、韓国社会を理解し、社会構成員として参加するのに大きな助けになった」と述べました。

奨学金給付と医療費減免

慶熙サイバー大学はもともと学費が安いですが、グローバル自律学部の学生は入学時奨学金、生活奨学金、成績

奨学金など様々な奨学金制度を通じて学費の負担を減らすことができます。最近、慶熙サイバー大学では新入生と編入生の97.3%が奨学金の恩恵を受け、特にグローバル自律学部の入学生は入学から卒業まで50%の奨学金の恩恵を受けられます。また、慶熙サイバー大学は学生に慶熙大学病院及び江東慶熙大学病院の10%の医療費減免の恩恵を提供し、特に移民に医療翻訳サービスを無料でサポートしています。

慶熙サイバー大学のグローバル自律学部は、韓国生活に必要な様々な知識と融合教育を提供し、会社の社長や同僚から認められるグローバル人材になることができます。

入学はどうすれば？

慶熙サイバー大学グローバル自律学部は、2025年度1学期1次新入生募集を2025年1月14日まで行います。2次募集

は2月14日までです。原書受付は慶熙サイバー大学入学支援センターのホームページ(go.khcu.ac.kr.kr.kr.jp)にPCまたはモバイルでアクセスし、入学願書作成、選考資料作成などの手続きを経て出願すればOKです。

慶熙サイバー大学グローバル自律学部のソ・ジンスク教授は、「私たちは外国人学生が学問と実務能力を高め、グローバル社会で堂々と活動できる機会を提供したい」とし、「慶熙サイバー大学で勉強すれば、移民が韓国で安定的で成功的な生活の基盤を築くのに大きな助けになるだろう」と述べました。

入学に関する詳細は、入学支援センターのホームページ(go.khcu.ac.kr)または入学相談電話(02-959-0000)でご確認ください。

<한글 기사 9면>

과파야스토리

자주 묻는 질문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정규 4년제 대학인가요? 일반 4년제 대학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며, 교육부의 고등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4년제 대학교입니다. 일반대학교와 동일한 학사학위를 수여하며 졸업 후에는 대학원 진학 및 유학이 가능합니다.

수업과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업, 시험, 과제 제출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면, 해외와 지방에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단, 시험 및 과제 제출은 PC만 가능하며, 강의 수강은 PC, 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

입학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인터넷 원서 접수 ▶ 자기소개서와 인성검사 ▶ 입학서류 제출 ▶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등록
* 입학전형은 한국어로 진행되며, 수능 점수나 고등학교 학생부 성적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글로벌자율학부로 입학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글로벌자율학부로 입학할 경우, 공통서류 이외에 외국인(어린 사본 등) 및 다문화 가정(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경희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를 참고하세요.

전형료 및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글로벌자율학부 입학생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등록금 50% 장학혜택이 부여됩니다.
* 외국인 및 해외거주자의 경우 전형료 면제
* 실업학비용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통합신청을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재외국민, 외국인은 면제)

전형료	입학비용	등록금
30,000원	99,000원	학점당 84,000원 (12학점 1,008,000원 ~ 18학점 1,512,000원) 장학 반영 시, 학점당 42,000원 (12학점 504,000원 ~ 18학점 756,000원)

한국어를 잘 못해요. 어떡하죠?

입학 전·후 기초 수준의 한국어 향상을 위해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센터에서 최대 6학점까지 학점이 인정되는 디딤돌과정(한국어연수)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디딤돌과정 상시 개설: 아카데미입문한국어1, 아카데미입문한국어2, 아카데미준비한국어

TOPIK 2급 이하 및 미소지침 위한 로드맵						
입학자 등록	입학 전		입학 후		입학 후	
	수강시기	과제	1학년 1학기	2학기		1학년 2학기
▶	온라인	한국어센터	글로벌자율학부	한국어센터	글로벌자율학부	한국어센터
	온라인	한국어센터	글로벌자율학부	한국어센터	글로벌자율학부	한국어센터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에서 창업하고 싶은 외국인이라면?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Start-up Korea Special Visa

1p **추진 신청 기간** 2024. 11. 7. 목 ~ 20. 수

#법무부 브리핑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

⑤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기존 AS-IS	개선 TO-BE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한정, 지역 여건을 반영한 비자제도 부족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을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자체로 확대 하고, 지역 맞춤형 "광역형 비자" 도입 추진 (2025년 4분기)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확대, 광역지자체가 맞춤형 비자제도를 제안하는 "광역형 비자"를 통해 지역 수요와 국가 전체 정책 방향과의 조화를 동시에 고려한 지역기반 이민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주요 개선사항 ⑤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법무부 브리핑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

① Top-Tier 비자 신설

기존 AS-IS	개선 TO-BE
첨단분야 우수인재 유치에 위한 인센티브 부족	우수인재와 동반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 제공 으로 인재 유치 경쟁력 강화 (2025년 1분기)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 지원을 위한 비자 신설로 우수인재와 동반가족에 출입국 체류 편의를 제공하여 인재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청주를 유도하겠습니다!

주요 개선사항 ① Top-Tier 비자 신설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외국인 창업인재를 위한 특별한 비자를 준비했습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D-8-4(S)

2p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 Start-up Korea Special Visa

#법무부 브리핑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

⑥ 이민 2세대 체류·자립 지원

기존 AS-IS	개선 TO-BE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취업 불가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 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하고, 학업·취업 지원 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 일원으로의 성장 촉진 (2024년 4분기)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내에서 가족과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주요 개선사항 ⑥ 이민 2세대 체류·자립 지원

#법무부 브리핑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

② 우수 유학생 취업 및 정착 지원 강화

기존 AS-IS	개선 TO-BE
짧은 진로 탐색기간 및 졸업 후 취업 범위 협소	졸업 후 구직기간 확대 (2025-2023 30%) 및 취업 허용 범위 확대 를 통해 인적자립 활용 ↑ (2024년 4분기)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인턴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취업이 가능한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넓히는 등 유학·취업 연계를 강화합니다!

주요 개선사항 ② 우수 유학생 취업 및 정착 지원 강화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기본 기술창업 비자와 어떻게 다른가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요건 | D-8-4(S)

1단계	2단계
민간평가위원회 사업성 및 혁신성 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추천서 발급

·더 많은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가능!

기존 기술창업 비자 발급 요건 | D-8-4

국내 전문학사 또는 국외 학사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TOP20 선정	3천만 원 이상의 정부 창업지원사업 선정
OASIS 프로그램 80점 이상 특점		

*세 가지 경우 모두 법민협업 및 공통 요건으로 합니다.

3p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 Start-up Korea Special Visa

#법무부 브리핑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

⑦ 동포 차별 해소 및 체류 지원

기존 AS-IS	개선 TO-BE
동포 비자(F-4) 신청 요건이 국적별로 달라 차별 논란 야기	방문취업(F-2), 재외동포(F-4)로 이원화된 비자 체계를 단기적으로 통합 하고, 취업 가능 범위 확대 (2024년 4분기~)

국적에 따른 재외동포(F-4) 비자 신청 요건 차별을 해소하고, 동포 취업 가능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통합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개선사항 ⑦ 동포 차별 해소 및 체류 지원

#법무부 브리핑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

③ "청년 드림" 비자 신설

기존 AS-IS	개선 TO-BE
잠재력이 높은 해외 청년인재 발굴을 위한 비자제도 미흡	한국전 참전국, 경제협력국(반도체·차 등) 청년 에 취업·연수·문화체험 기회 부여 (2025년 2분기)

"청년 드림 비자(Youth's Dream in Korea Visa)" 신설을 통해 잠재력이 높은 한국전 국제연합군(UN)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 등에게 국내 취업 문화체험 등 기회를 부여해 청년 인적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주요 개선사항 ③ 청년 드림 비자 신설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과정 | D-8-4(S)

1단계 신청·접수 신청서, 사업계획서 K-스타트업 포털, GSC 홈페이지	2단계 평가 사업성·혁신성 평가 민간평가위원회
4단계 비자신청 출입국·외국인관서, 재외공관 방문 추천대상자(외국인)	3단계 추천 특별비자 추천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
5단계 최종발급 법무부	

4p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 Start-up Korea Special Visa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신청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5p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 Start-up Korea Special Visa

#법무부 브리핑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

④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 단순노무 취업 허용

기존 AS-IS	개선 TO-BE
동반가족의 취업 범위가 제한되어 사회경제적 통합 저해 요인으로 작용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추면 단순노무 취업 을 허용해 우수 인재의 안정적인 가족단위 체류와 통합을 지원 (2024년 4분기)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로서 한국어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사·육아를 포함한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족 단위 체류를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개선사항 ④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 단순노무 취업 허용

이주민 기자단

폭설 등 자연재해 앞에 무기력한 인간...21세기에도 두려움 느껴

〈칼럼〉 오유빈 경기다문화뉴스 이주민기자...폭설 이틀 동안 40건의 재난안내 문자 받아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엄청난 폭설이 내려 수도권 곳곳이 눈에 덮였다. 117년 만에 최대의 폭설이라고 한다.

11월 26일 밤 9시 9분에 발송된 서울특별시청의 재난안내 문자 내용은 “내일 새벽부터 서울시 전역에 많은 눈이 예상된다. 출근시간 빙판길에 우려되오니 차량 운행 자제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권장한다”라는 것이다.

이어서 27일 새벽 6시부터 재난안내 문자가 계속 오더니 “현재 서울 전역에 많은 눈이 내렸고 강한 눈이 지속될 예정, 출근시간에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오니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이다.

한 시간 후에는 부천시청의 재난안내 문자도 왔고 10시 10분에는 경기도청의 재난안내 문자도 왔다. “이번 눈은 무거운 습설로 비닐하우스 등 적설취약 구조물의 지붕 위 쌓인 눈 제설시 구조물 붕괴 및 낙상 등의 사고 우려가 높으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10시 40분에는 제2서해안고속도로(주)를 비롯

해 23건의 재난안내 문자가 추가로 왔다. 11월 27일 하루에만 재난안내 문자가 총 27건이 온 것이다.

그리고 11월 28일에도 재난안내 문자가 13건이 왔으며 주로 내용은 출근시간 빙판길 때문에 사고를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날에는 119번 신고가 폭주해 비긴급전화는 110번을 이용해달라고 했다.

27일~28일 이틀 동안 안전 문자를 받으며 긴장과 무서운 심정이 마음을 채웠다. 출근길 곳곳에는 빙판길이 만들어져 더 두려웠다. 21세기에 사는데도 자연재해 앞에 불안감이 몰려온다.

Căng thẳng với...trận bão tuyết của mùa thu năm 2024

Từ ngày 27 đến ngày 28 tháng 11 do trận bão tuyết nên toàn khu vực thủ đô bị tuyết phủ trắng xóa. Sau 117 năm mới có hiện tượng bão tuyết xuất hiện vào mùa thu.

Tối của ngày 26/11 vào lúc 21 giờ 9 phút, tin nhắn khẩn cấp của Tòa thị chính Thủ đô Seoul gửi đến với nội dung: "Từ rạng sáng ngày mai dự kiến sẽ có tuyết rơi dày trên toàn Thủ đô Seoul. Do lo ngại mặt đường đóng băng nên khi đi làm hạn chế sử dụng xe cá nhân và khuyến khích nên đi phương tiện giao thông công cộng."

Tiếp đến là từ 6h sáng ngày 27/11 những tin nhắn khẩn cấp liên tục gửi đến: "Hiện tại tuyết đã rơi rất dày trên khắp Thủ đô Seoul và dự kiến tuyết sẽ tiếp tục rơi

dày nên vào giờ đi làm sẽ rất hỗn loạn, vì vậy khuyến khích sử dụng phương tiện giao thông công cộng như xe buýt hoặc tàu điện ngầm."

Và một giờ sau lại có tin nhắn khẩn cấp từ Tòa thị chính Thành phố Bucheon rồi là tin nhắn khẩn cấp từ Ủy ban tỉnh Gyeonggi vào lúc 10 giờ 10 phút: "Lần này do tuyết rơi dày nên trên nóc của các nhà kính (nhà làm bằng nylon) bị tuyết phủ kín có thể sụp đổ gây ra tai nạn nên cần chú ý an toàn."

Vào lúc 10 giờ 40 phút Công ty đường cao tốc Jay Seohae-an đã gửi tin nhắn khẩn cấp: "Vui lòng đi vòng sang hướng Nam Ansan IC do hạn chế đi sang JCT hướng Siheung của đường cao tốc Pyeongtaek, Siheung." Và sau đó khoảng 23 tin nhắn khẩn cấp nữa được gửi đến. Chỉ riêng ngày 27/11 đã có tổng cộng 27 tin nhắn khẩn cấp gửi đến.

Và ngày 28/11 thì có khoảng 13 tin nhắn khẩn cấp gửi đến với nội dung chủ yếu là phải chú ý tai nạn do đường đóng băng gây trơn trượt. Đặc biệt trong ngày này do số cuộc gọi, gọi dồn dập vào 119 nên nếu trường hợp không khẩn cấp thì hãy gọi vào số 110.

Trong ngày 27 đến ngày 28, chỉ trong hai ngày với việc nhận tin nhắn khẩn cấp liên tục thì tâm trạng luôn trong tình trạng căng thẳng và sợ hãi. Và trên đường đi làm thì mọi con đường đều bị đóng băng nên càng khiếp vía hơn, chúng ta đang sống trong thế kỉ 21 nhưng không hiểu tại sao cảm giác bất an thì ngày càng lớn dần lên...

부천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참여단체 모집...안전·가족·경제 분야 중점 추진

부천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25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5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은 총 1억 원 규모로, 사회적 인식 변화 및 시민의 정책요구를 반영해 안전, 가족, 경제의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신청자격은 부천시 소재의 비영리법인·단체·기관 등으로, 각 단체는 하나의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모임을 결성해 활동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도 도전해 보면 어떨까? 결혼이민자들이 함께 하는 모임이라면 도전해 볼만하다.

부천시는 사업의 규모·성격·내용에 따라 사업당 1,000만 원 이내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2024년 12월 26일 오전 9시

부터 2025년 1월 15일 오후 6시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http://www.losim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요구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선정 심의 위원회에 출석해 사업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에 응해야 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부천시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2월 말 부천시 홈페이지(<https://www.bucheon.go.kr>)에 게시되며 개별적으로도 통지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신청단체의 사업 수행능력을 세세히 심사해 역량 있는 단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 이후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예산집행 관리와

평가를 강화해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탐e)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모든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선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선미 여성가족과장은 “2025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은 안전, 가족,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역량 있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문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내 부천소식에서 확인하거나 부천시 여성가족과(☎032-625-2914)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시흥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2024년 하반기 한국어교육' 종강식



시흥시가족센터(센터장 고경임)는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및 결혼이민자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 한국어교육은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으며, 교육을 마무리한 12월에 종강식이 진행됐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종강식은

12월 4일 능곡 분관에서 진행됐으며, 수강생 34명이 참석했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교육' 종강식은 12월 5일 정왕 본관에서 진행되었으며, 수강생 55명이 참석했다.

이번 종강식에서는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수강한 수강생들에게 졸업장, 개근상, 모범상, 성적우수상을 수여했다. 수상 후에는 애국가부터 K-POP까지 수강생들이 한국어로 다양한 노래 솜씨를 뽐내는 장기자랑으로 종강식의 흥을 돋웠다.

수강생들은 소감발표 시간을 통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한국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한국어를 잘 못 하는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이번 학기에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몸이 아파서 입원도 했어요. 그런데 강사님과 친구들이 힘내라는 영상을 보내줘서 빨리 회복할 수 있었어요."라는 소감을 전했다. 시흥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들의 원만한 한국 생활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에 진행될 한국어 교육은 올 1월 중순 경 센터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시흥시가족센터는 지역사회 다양한 가족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김장김치 통해 한국의 정과 사랑을 나눠요"

시흥시가족센터, 지역 기관과 '제13회 시흥사랑 김장 담그기' 진행



시흥시가족센터는 지난해 12월 13일 한국공학대학교, ㈜맑은누리와 협력해 '제13회 시흥사랑 김장담그기' 김치 나눔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김장철을 맞아 다문화가족, 북이탈 가족, 지역사회 연계기관 등에 153박스의 김장김치를 전달하며 따뜻

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족은 "매년 김장을 준비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이렇게 김치를 지원받아 가족과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며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공학대학교 관계자는 "추운 겨울이지만 이번 김치 나눔을 통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보람 있었다"며, "다문화가족과 북이탈 가족들이 김치를 통해 더 행복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맑은누리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행사에 동참할 수 있어 기뻐했다"라며 "이번 김치를 통해 많은 분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경임 시흥시가족센터장은 "김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정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전통"이라며 "앞으로도 가족들이 서로를 보듬고 응원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가족센터는 가족교육, 가족문화, 가족상담, 아이돌봄지원사업, 가족역량강화사업, 공동육아나눔터사업, 찾아가는 통합가족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흥시 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김영의 기자

시흥시, 시흥우체국 폐의약품 회수 노력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약물 오남용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시흥시 지역에서 '우체통을 통한 폐의약품 회수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흥시는 지난 12월 16일 시흥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최근까지 가정에서 발생한 폐의약품은 시민이 직접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하고 이를 시흥시에서 정기적으로 수거해 처리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흥시 관내에 설치된 우체통을 통해 시민들이 폐의약품을 편리하게 분리배출이 가능하게 되면서 시민 의식을 높이고, 폐의약품 회수율이 향상돼 환경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 절차는 간단하다. 시민들은 각 가정에서 전용 회수 봉투 또는 일반 편지봉투에 '폐의약품'이라고 기재한 뒤 밀봉해 가까운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이후 우체통에 투입된 폐의약품은 집배원이 회수한 후 시흥시청에 전달해 처리된다. 다만, 물약은 우편물 훼손이 우려되므로 우체통이 아닌 주민센터, 보건소 등 기존에 설치된 수거함을 이용해야 한다.

최명선 시흥우체국장은 "시흥시와 협업해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 환경 보호를 위해 우체국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 집배원을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공적 역할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폐의약품 수거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기를 바라며,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 환경오염 예방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체통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입구를 넓히는 형태로 모습을 바꿔 소포와 같은 실물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입구 크기가 가로로 길고 세로로 짧게 설계돼 종이 우편 등만 넣을 수 있도록 돼 있다는 한계를 보완하고, 잊힌 우체통의 쓰임새도 다시 살리기 위한 포석이다. 특히 폐의약품-커피 캡슐 등 수거를 위한 입구를 별도로 만들어 환경보전 효과까지 한 번에 거둘 수 있도록 한다.

이지은 기자

E-9 근로자의 산업현장 적응 돕는 '특화훈련'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2025년도 예산 확정... '비전문외국인 특화훈련센터'도 확충

한국의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예산을 확정하고 어떤 사업에 얼마의 금액이 사용되는지 발표했어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기관은 사업과 예산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외국인 주민의 근로를 위해 어떤 분야에서 얼마의 예산이 사용되는지 알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숙련인력 양성

E-9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인은 한국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요. 현장 자체가 낯설고 각종 기계나 공구도 처음 보는 것인데다가

사용법도 모르지요. 더구나 일과 생활을 한국어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특화 교육과정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①E-9 특화훈련: 이 프로그램은 대한상공회의소의 지역 인력개발원 또는 지역 산업체와 연계해 E-9근로자에게 기본 직무기술을 교육하는 것이에요. 제조업의 다양한 기계 및 공구 사용법과 직무초를 훈련받게 되며 특히 제조업 현장에서 어느 정도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돼요. 특화훈련은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어요. 보통 4

주 과정으로 운영되며 내년에 6000명을 교육할 계획이에요. 비전문외국인 특화훈련센터도 내년에 더 늘려서 운영할 계획이에요.

②폴리텍 한국어훈련: 한국의 폴리텍 대학에서는 원래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 외국인을 참여시켜 기술 한국어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시범 사업으로 외국인 50명이 참여할 수 있어요.

③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 지원: 외국인 유학생은 학교를 다니면서 기업 탐색, 직무 훈련, 비자 전환 등의 일을 혼

자 하기가 어렵지요. 이에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유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일과 학습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에요.

④안전보건교육 및 상담지원 : 고용노동부는 내국인보다 산업재해를 당하는 비율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년에 안전보건교육을 체계화하고 확대할 계획이에요. 다국어 교육컨텐츠도 더 많이 개발하구요. 또한 산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해 상담 등 지원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어요. <중국어 하단, 영어 32면> 파파야스토리

'25년도 확대되는 외국인 일자리 지원

안전하게 일하고 싶은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및 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밀착 지원

- ☑ 내국인 중심 안전보건교육체계 → 외국인 근로자는 단편적인 교육만 지원된 측면
- ☑ 체계적 안전보건교육 확대·강화 ('25년 42천명)
- ☑ 표준화된 커리큘럼·교재 개발·보급, 위험요인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콘텐츠 개발·보급('25년 300종)

취업과 한국 정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외국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 한국어 및 특화 직업훈련 제공

- ☑ 폴리텍 직업훈련 → 내국인 중심으로 지원 중
- ☑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위해 기술 한국어 훈련 제공 ('25. 50명 시범운영)
- ☑ 지역 산업체 연계 훈련, 한국문화 등 특화 프로그램 제공('25. 200명)
- ☑ 외국인 유학생은 기업 탐색, 직무 훈련, 적응, 비자 전환 등 취업 어려움 존재
- ☑ 체계적 일학습병행 훈련과 함께 한국 적응 프로그램 지원('25. 1천명)

직무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력 조기 정착 및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특화훈련 지원

- ☑ 외국인 니즈에 대한 고려 없이 내국인과 함께 훈련 참여
- ☑ 소규모사업장 외국인 재직자 니즈에 특화된 직무능력 향상훈련 제공
- ☑ 외국인력(E-9) 도입규모 지속 확대 → 충분한 훈련 공급 한계 * '23년 237명, '24년 4,000명 훈련계획
- ☑ 직무기초훈련을 통한 숙련인력성장 지원, 지방중소기업에 가능인력 공급 * '25년 6,000명 훈련 지원

오래 일하고 싶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내 애로해소 지원

- ☑ 사업장 변경 관련 분쟁 발생 시 권익보호협의회등을 통해 판단
- ☑ 노사관계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 조정 (공인노무사지원단 활용)
- ☑ 사업주 갈등 해소 지원, OJT 지원, 주거환경 점검(3만명)
- ☑ 도입규모 확대에 따라 지원 목표 상향(5만명)

帮助E-9劳动者适应产业现场的“特化训练”将得到加强 还将扩充“非专业外国人特化训练中心”

韩国의 고용노동부已确定2025年预算，并公布了各项目的资金使用情况。

用国民税金运营的政府机关有义务向国民提供有关项目和预算的信息。从此次发表的内容中可以看出，为了外国劳动者在哪些领域使用了多少预算。以下是相关内容的整理。

熟练人才培养

持E-9签证在韩国工作的外国人在韩国产业现场面临各种困难。现场本身就很陌生，而且各种机械设备和工具也是第一次接触，不了解如何使用。再加上工作和生活要用韩语，所以很难适应。因此雇佣劳动部决定明年扩大针对外国劳动者的特化教育课程。

①E-9特化训练: 该项目是与大韩商工会议所的地区人力开发院或地区产业体合作，对E-9劳动者进行基本职务技术教育。培训内容包括制造业的多种机器及工具使用方法和职务基础训练，特别是该培训还帮助劳动者在制造业现场掌握一定的韩语沟通能力。特殊培训是由雇

主而非外国劳动者申请的，通常课程为期4周。计划明年培训6000名劳动者。明年还计划增加运营非专业外国人特化训练中心。

②Polytech韩语训练: 韩国的Polytech大学本来就运营职业培训课程。现决定让外国人参与进行技术韩语培训。该试点项目可供50名外国人参与。

③外国留学生工作学习并行支援: 外国留学生一边上学一边独立完成企业探索、职务训练、签证转换等工作很困难。对此雇佣劳动部计划明年以1000名留学生为对象提供支援，帮助他们系统地进行工作和学习的训练项目。

④安全保健教育及咨询支援: 外国劳动者发生工业事故的比例上高于本地劳动者，为了让劳动者能够安全工作，雇佣劳动部计划明年系统化并扩大安全保健教育。此外，将开发更多多语言教育内容。同时，还将加强针对在工业现场遇到困难的外国劳动者的咨询和支援服务。

〈한글 기사 상단〉
파파야스토리



시흥시가족센터(센터장 고경임)는 지난해 12월 14일 다국적 결혼이민자 동아리인 ‘글로벌 요리모임’ 마지막 활동으로 요리대회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글로벌 요리모임’은 다국적 결혼이민자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음식 문화를 교류하고 한국생활 적응을 돕는 공동체이다. 이번 요리대회는 1부 요리대회와 2부 공연 및 시상식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요리대회에는 필리핀, 네팔, 베트남, 중국, 미얀마, 파키스탄, 태국, 파라과이 등 8개국을 대표하는 팀들이 전통 의상을 갖추어 입고 참여해 각국의 전통 요리들을 선보였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개성을 담은 요리로 열띤 경연을 펼치며 대회를 풍성한 향기와 활기로 가득 채웠다.

심사는 시흥시가족센터 김완영 선임과장, 한국아동요

리지도자협회의 Joy와 Daniella로 한국인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맛, 창의성, 비주얼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심사위원단은 ‘참가자들의 노력과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2부에서는 각국의 결혼이민자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춤 공연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더했으며,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요리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팀들과 참가자들에게 상장과 상품이 수여됐다. 특히, 심사 때마다 선정된 대상 요리팀은 극찬과 큰 박수를 받았으며 참가자들은 서로를 응원하며 웃음과 박수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요리대회에 참가한 한 결혼이민자는 “자신의 나라 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 뿌듯했고, 그동안 모임을 통해 여러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경임 시흥시가족센터장은 “오늘과 같은 요리대회는 센터에서 처음 진행하는 행사로 많은 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더불어 성장하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영의 기자

결혼이민자도 참여 가능한 디딤돌 취업지원사업 확인

시흥시(시장 임병택) 일자리총괄과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이하, ‘여성새일본부’)는 경력보유 여성의 취·창업 전문성 강화와 경력개발 지원을 위해 1년간 추진한 ‘2024년 디딤돌 취업지원사업’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디딤돌 취업지원사업은 경력보유 여성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전 경험을 제공하는 고용지원 시스템으로, 지난 12월 6일에는 올해 선정된 디딤돌사업 참여자들과 함께 경력개발 과정과 취창업 성과를 나누며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디딤돌 사업참여자들은 1년간 단계별 지원을 받으며 기존의 획일적인 직업교육 훈련을 탈피하고, 경력개발과 숙련 기회를 제공받았다. 또한,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요처를 다량 확보하고, 창업 육성 과정 등을 거쳐 성장했다.

이번 사업은 6개 단체, 41명이 수료했으며 협동조합 설립, 법인 설립, 개인 창업 등 총 35명이 취·창업에 성공해 85%의 취업 성과를 달성했다. 또 지역내 관계기관 연계를 통한 강사 파견으로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결혼이민자도 디딤돌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25년에도 계속 운영된다.

박건호 시흥시 일자리총괄과장은 “경력보유 여성들에게 직업 준비를 위한 성장 발판을 마련해 이를 사회적경제 창업으로 이어가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여성새일팀(031-310-60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시흥시 내수 소비 촉진 위한 ‘시흥화폐 시루 10% 할인’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내수 침체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시루 10% 특별 할인을 추진한다. 월 구매한도액 30만 원 내에서 특별 할인 판매 기간에는 10% 할인을 적용, 최대 3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 할인 판매와 더불어 올해 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만보시루’ 서비스도 1월에 재개한다. 1일 1만 보를 걸으면 100포인트 시루를 지급하는 만보시루는 걷기를 통해 건강을 얻고, 지역화폐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5만 8천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며 사용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만보시루 내 ‘걸음 기부 플랫폼’을 출시해 생활 속 기부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등 의미를 더했다.

2025년에는 시루 배달앱(떡깨비), 시루 동네티콘(두구두구) 등 다양한 시루 연계 앱을 더욱더 활성화하며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시흥화폐 시루는 지난 2023년 발행 1조 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누적 발행 1조 3,100억 원을 달성하며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직접 만든 작품으로 지역사회 온기

시흥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다가온(ON) 프로그램



시흥시가족센터(센터장 고경임) 능곡분관은 지난해 12월 6일 능곡LH5단지 아파트 경로당과 장현지역아동센터에 결혼이민자 수공예교실에서 직접 만든 수공예작품 총 350개를 전달했다.

결혼이민자 수공예교실은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다가온(ON)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올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민자들은 시흥시가족센터 능곡분관에서 지역

사회 재능나눔으로 양말목 컵받침과 냄비받침, 수세미, 커피박킹, 머리끈, 파우치 등을 만들었다.

수공예작품을 전달받은 능곡LH5단지 경로당 어르신은 “양말목 컵받침과 냄비받침이 신기하고 수세미도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며 감사를 전했다.

결혼이민자 수공예교실 프로그램은 시흥시가족센터 능곡분관에서 상시로 운영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들이 재봉틀과 각종 공예 재료,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시흥시가족센터 능곡분관은 수공예교실을 비롯해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다가온(ON)사업 일환으로 ‘자녀돌봄지원 및 공간제공’, ‘결혼이민자 자조활동’, ‘자녀성장지원’, ‘지역사회통합지원’ 프로그램 등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가족센터 능곡분관(031-432-7994)으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Reason why illegal aliens who left the country during the special voluntary departure period returned after one year 미등록 외국인 자진출국기간 연장

The Ministry of Justice has decided to extend the 'Special Voluntary Departure Period for Illegal Overseas Residents', which was scheduled to run until November 30, by two months until January 31, 2025. This extension measure is intended to provide more illegal overseas residents with the opportunity to voluntarily leave the country and to take into account situations such as the year-end and New Year holidays when it is difficult to book return flights.

Illegal aliens who voluntarily leave the country during the special voluntary departure period can receive benefits such as ▲exemption from fines for illegal stay ▲exemption from entry restrictions. However, foreigners who have stayed illegally after September 30 of this year,

illegal immigrants, those who have used forged passports, criminals, and those who have failed to comply with departure orders are excluded.

Exemption from entry restrictions, is it real?

Many foreigners wonder whether foreigners who leave Korea during the special voluntary departure period are actually granted the benefit of exemption from entry restrictions. It is true that they are granted the benefit of exemption from entry restrictions. However, this only means that they are not included in the Ministry of Justice's entry restriction list.

If an illegal alien who voluntarily left Korea applies for a visa at the Korean embassy to return to Korea from his or her home country, the consul in charge of the visa can confirm that

the name of the alien is not on the entry restriction list, but the record of illegal residence in Korea remains. Therefore, the consul in charge of the visa will refuse to issue the visa.

How many years have you been banned from entering the country?

Even if an illegal alien voluntarily leaves the country, he or she is generally prohibited from entering Korea for five years. Many foreigners ask if there is any other way, but if there is a humanitarian reason, he or she can enter earlier.

For example, if a husband who followed his wife to graduate school in Korea became an illegal resident and then voluntarily left the country, it would be difficult for him to re-enter the country within 5 years. However, the wife became pregnant before the

husband voluntarily left the country, and while the husband was in his home country, she gave birth and had to take care of her studies and childcare alone. Anyone can see that this is a humanitarian case.

Of course, in this case, the husband's visa was initially denied. But the wife did not give up and filed a complaint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decided that it was appropriate to issue a visa, and there was actually a case where a person entered Korea within a year of leaving the country. Without such a clear and valid humanitarian reason, it is difficult to re-enter Korea within five years. <한글 기사 31면>

파파야스토리

Почему иностранцы, покинувшие Корею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добровольного выезда, вернулись спустя год? 미등록 외국인 재입국 사유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Южной Кореи объявило о продлении срока программы «Добровольный выезд для нелегальных мигрантов» с 30 ноября 2024 года до 31 января 2025 года.

Это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едоставить больше возможностей нелегально проживающим иностранцам добровольно покинуть страну, а также учесть сложности с бронированием авиабилетов в период праздничных каникул.

Иностранцы, добровольно покидающие Южную Корею в этот период, могут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следующие преимущества:▲Освобождение от штрафов за нелегальное пребывание;▲Отмену запрет

а на повторный въезд. Однако эти льготы не распространяются на иностранцев, которые начали незаконно проживать в Корее после 30 сентября 2024 года, а также на лиц, въехавших в страну нелегально, с поддельными документами, нарушителей приказа о депортации и лиц, совершивших уголовные преступления.

Действительно ли запрет на въезд отменяется?

Многие иностранцы сомневаются, действительно ли программа добровольного выезда снимает запрет на повторный въезд. Это правда, что в этом случае человек не включается в официальный список запрещённых к въезду. Однако факт незаконного пребыван

ия остаётся в базе данных.

Например, если человек подаёт заявление на визу в посольстве Южной Кореи, консульский офицер, проверяя прошлое заявителя, видит записи о незаконном пребывании. На этом основании выдача визы, скорее всего, будет отклонена.

Когда можно будет вернуться в Южную Корею?

Даже при добровольном выезде большинству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запрещается въезд в Южную Корею на 5 лет. Однако в некоторых случаях, связанных с гуманитарными причинами, срок запрета может быть сокращён.

Например, муж, который стал нелегальным мигрантом, доброво

льно покинул страну, пока его жена училась в магистратуре в Южной Кореи. Во время его отсутствия жена родила ребёнка и столкнулась с трудностями, совмещая учёбу и воспитание ребёнка.

В такой ситуации жена обратилась в Комиссию по гражданским правам и добилась того, чтобы её мужу выдали визу на основании гуманитарных причин. Это позволило ему вернуться в Южную Корею спустя всего год после выезда. Однако такие случаи являются исключением и требуют веских и очевидных гуманитарных оснований. Без них повторный въезд в страну в течение 5 лет остаётся крайне затруднительным.

<한글 기사 31면>

파파야스토리

겨울방학 '실외 대 실내' 어디로 갈까?... 다문화가족 취향별로 즐겨요

겨울 레저 '월곶에코피아', 사계절 일출 명소 '소래산' 등 시흥에서 겨울을 제대로 즐기자



아이들의 방학이 시작되면 가족이 자주 찾는 실내 레저시설은 인산인해를 이룬다. 하지만 계절을 제대로 만끽하고 싶은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선다.

눈밭을 구르며, 퐁퐁 언 손을 녹여가며 겨울만이 주는 정취를 누린다. 하지만 시흥시에서는 실외 레저부터 날씨에 상관없이 따뜻하게 즐기는 실내 놀이시설까지, 겨울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이 다양하다.

#겨울 레저 만끽! '월곶에코피아'

매년 겨울 시흥에서는 도심 속 제대로 된 눈썰매를 즐겨볼 수 있다. 월곶에코피아 눈썰매장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과 함

께 다양한 겨울철 놀이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야외시설이다.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활용되던 시설이 겨울이 되면 눈썰매장으로 변신한다. 아이들이 탈 수 있는 미니 썰매장과 초등학교 이상 이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슬라이드가 갖춰져 있어 안전하게 눈썰매 즐길 수 있다.

눈썰매뿐 아니라 빙어 잡기 체험, 놀이기구 등 다양한 겨울철 야외활동 한 곳에서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높다. 빙어체험 후 매점서 요리해 먹을 수도 있다.

월곶에코피아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며, 12시부터 13시 30분까지는 정비 시간이다. 매주 월요일은 시설정비를 위해 휴장한다.

시설 이용은 네이버를 통해 예약 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일부 미관매분만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이용 요금은 유아(어린이(3세~12세) 4,000원, 청소년(13세~18세) 6,000원, 성인(19세 이상) 8,000원이며 시흥시민은 최근 3개월 내 발급

된 등본 지참 시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사계절 일출 명소 '소래산'

소래산은 높이 2994m로, 사계절 모두 기분 좋게 산행할 수 있다. 바쁜 일상 속 피로와 긴장을 기분 좋게 풀어줄 휴식처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산 정상까지 완만한 들계단 길을 오르다 보면, 길 한편에 거대한 바윗돌이 나타난다. 2001년 국보로 지정된 마애보살상이 새겨진 병풍바위다. 세월을 지나며 흐릿해졌지만, 가만히 쳐다보고 있자면 12m의 거불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이 시흥시 일대를 굽어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해발 2994m의 소래산을 알리는 정상 표지석을 만났다면, 짧지만 다채로운 소래산 산행의 가장 중요한 지점에 다다른 셈이다. 선명하게 내려다보이는 서울 시가지와 서해바다, 정상에 다다랐다는 소박한 성취감이 가슴을 따뜻하게 채운

다. 특히 일출을 즐기는 산행객들에게도 이름나 있다. 왕복 2시간이면 넉넉하게 산행을 마칠 수 있다.

#연꽃테마파크 '호조별 연날리기'

시흥시는 오는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꽃테마파크에서 '2024년 호조별 연날리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체험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연 대여는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우선으로 하며, 대여 시 보증금 1,000원이 부과되고 이용 후 연 반납 시 보증금을 돌려준다. 단, 연을 분실하면 연 구입비가 대여금으로 총당된다.

연 대여 장소는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시흥시 관곡지로 139 (하중동) 2층 사무실이며, 마지막 대여 시간은 오후 3시 이전까지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단체 신청 시에는 우선하여 연을 대여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Information about the Payment of Local Tax Debts
地方稅滯納金繳納說明

지방세란? What are local taxes? 什么是地方稅?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외국인 포함) 모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These are the taxes that all residents (including foreigners) residing within the jurisdictions of the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to pay.
指的是居住在地方自治团体的居民(包括外国人)都应当缴纳的税金。

개인(균등분) 주민세란? What is the Individual (equal amounts) Resident Tax? 什么是个人(均等分)居民稅?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시흥시에 주소를 둔 개인은 매년 7월 1일 기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All individuals who are registered as foreigners according to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nd have their address in Siheung City as of July 1st are subject to payment of the Resident Tax every year.
根据出入境管理法的规定,进行了外国人登记,而且住址位于始兴市的个人应当于每年7月1日为准缴纳居民稅。

자동차세란? What is the Automobile Tax? 什么是汽车稅?

자동차 구입하거나 보유하면 그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The Automobile Tax is imposed only on individuals who purchase or possess automobiles.
如果购买或拥有汽车时,应当缴纳相应的地方稅。

시흥시청 징수과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Information about the Payment of Local Tax Debts
地方稅滯納金繳納說明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What happens if you do not pay the local taxes? 如果不缴纳地方稅的话?

급여, 예금, 주택임차보증금 및 보험금 압류, 소유한 차량, 부동산 등이 공매처분 될 수 있으며 그밖에도 체류연장, 관허사업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Salaries, deposits, tenancy deposits, or insurance money can be confiscated, or vehicles and real estate properties can be liquidated through public sales. In addition, the extension of stay or operation of government-licensed businesses can be restricted. In particular, license plate can be officially confiscated and held if the automobile tax is not paid.

工資、存款、住宅租賃保證金、保險金可能會被扣押,且本人所有的車輛、不動產等也有可能被拍賣。除此以外,滯留時間延長、政府批准的项目也有可能因此受到不利影響。特別是,如果不繳納汽車稅時,汽車牌照也有可能被收管。

체납세액 Tax Amounts Debts 滯納稅額

납부기한 Due Date for Payment 繳納期限

고지서 또는 안내문 참고
Please refer to the tax bill or notice
參考通知書或說明文

납부방법 How to Make Payment 繳納方法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납부(ARS ☎1899-2800),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Payment can be submitted through Virtual Account, Credit Card (ARS ☎1899-2800), or WETAX (www.wetax.go.kr)
虛擬賬戶匯款、信用卡繳納 (ARS ☎1899-2800), WETAX(www.wetax.go.kr) 繳納

문의사항 Inquiries 諮詢事項

시흥시청 징수과 ☎ 031-317-0986, 0950, 0954
Tax Collection Department, Siheung City ☎ 031-317-0986, 0950, 0954
始興市庁征收科 ☎ 031-317-0986, 0950, 0954

시흥시청 징수과

Với ý tưởng giảm lãng phí thuốc, nhận được giải thưởng và được cấp visa sang Hàn Quốc! 약물 낭비 줄이는 아이디어로 한국에서 상금 받고 비자도 받고!



Nhiều người nước ngoài thường nghĩ đến việc xin visa E-9 khi muốn đến làm việc tại Hàn Quốc. Tuy nhiên, thay vì làm việc tại các công xưởng Hàn Quốc với visa E-9, người nước ngoài cũng có thể xin cấp 'Visa đặc biệt dành cho công ty khởi nghiệp Hàn Quốc' hoặc visa khởi nghiệp công nghệ (D-8-4) và làm việc tại Hàn Quốc với tư cách là một doanh nhân tại các doanh nghiệp vừa và nhỏ.

Bộ Doanh nghiệp vừa và nhỏ và Khởi nghiệp đã tổ chức Demo Day '2024 K-Startup Grand Challenge' tại COEX, Seoul vào ngày 11 tháng 12 vừa qua.

Demo Day là một cuộc thi, nơi những người tham gia dự thi khởi nghiệp thể hiện thành tích của mình. Với sự tham dự của khoảng 100 người, trong đó có 40 nhóm khởi nghiệp người nước ngoài và các nhà đầu tư mạo hiểm trong và ngoài nước.

'K-Startup Grand Challenge' bắt đầu từ năm 2016, là chương trình hỗ trợ các công ty khởi nghiệp xuất sắc ở nước ngoài thành lập doanh nghiệp trong nước và định cư tại Hàn Quốc. Năm nay, có tổng cộng 1.716 đội đến từ 114 quốc gia trên thế giới đăng ký tham gia.

Sau khi tuyển chọn hồ sơ và đánh giá trình bày, 40 đội cuối cùng đã được chọn và họ đã đến Hàn Quốc vào tháng 9 để nhận khóa đào tạo về thiết lập kế hoạch khởi nghiệp tại Hàn Quốc trong khoảng ba tháng rưỡi và chuẩn bị cho Demo Day này.

Trong Ngày Demo Day, 8 đội đứng đầu được lựa chọn thông qua đánh giá thành tích thương mại hóa và vòng sơ khảo đã trình bày về ý tưởng khởi nghiệp và kế hoạch kinh doanh. Trong đó, có 5 đội đứng đầu cuối cùng đã được chọn và nhận tổng giải thưởng trị giá 400.000 USD.

'Polymerize' (Ấn Độ) được chọn là nhóm khởi nghiệp người nước ngoài xuất sắc nhất năm nay, sẽ nhận được giải thưởng trị giá 150.000 USD. Vị trí thứ hai, nhận 100.000 USD tiền thưởng, thuộc về 'Nanodropper' (Mỹ), vị trí thứ ba thuộc về 'Open Energy' (Bồ Đào Nha), vị trí thứ tư thuộc về 'Gimme Savour' (Tây Ban Nha) và vị trí thứ năm thuộc về 'Murple' (Trung Quốc).

Đội khởi nghiệp đứng đầu là công ty phát triển

phần mềm tin học AI dựa trên điện toán đám mây. Đó là một lĩnh vực không dễ để người bình thường dẫn thân vào.

Bên cạnh đó, đội khởi nghiệp thứ hai đã nghĩ ra cách làm giảm thiểu việc lãng phí thuốc, và đội khởi nghiệp đứng thứ tư với kế hoạch sản xuất các sản phẩm protein từ thực vật có hương vị như thịt, hải sản và phở mai. Đội khởi nghiệp xếp thứ năm cũng đang phát triển một nền tảng chỉnh sửa tài liệu giúp các nhà nghiên cứu có thể viết bài nhanh hơn khoảng 5 lần.

Các bạn thấy như thế nào ạ? Không nhất thiết phải tiếp cận những lĩnh vực khó khăn, các bạn cũng có thể thay đổi thế giới với những ý tưởng của mình phải không ạ?

Tại lễ trao giải này, đã công bố 20 đội đứng đầu, trong đó có 5 đội được trao tiền thưởng. Và dự kiến sẽ hỗ trợ việc thương mại hóa cũng như bổ sung các khóa đào tạo tiếp theo trong 3 tháng để có thể giúp các doanh nghiệp ổn định và phát triển tại Hàn Quốc.

Những bạn người nước ngoài nếu đang có những ý tưởng sáng tạo thì đừng nên bỏ cuộc mà hãy thử thách bản thân nhé!

<한글 기사 5면>

파파야스토리

ด้วยไอเดียลดการสิ้นเปลืองยา ได้รับรางวัลในเกาหลีและวีซ่าอีกด้วย!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안내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จำนวนมากมักคิดถึงการขอวีซ่า E-9 หากต้องการมาเกาหลีและทำงาน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แทนที่จะทำงานในโรงงานที่เกาหลีด้วยวีซ่า E-9 ลองขอวีซ่า "วีซ่าพิเศษสตาร์ทอัพโคเรีย" หรือลองขอวีซ่าสตาร์ทอัพด้านเทคโนโลยี (D-8-4) และทำงานที่เกาหลีในฐานะผู้ประกอบการถึงแม้จะเป็นเพียงบริษัทขนาดเล็กดูใหม่?

กระทรวง SMEs และ Startups จัดงานเดโมเดย์ 2024 "K-สตาร์ทอัพ แกรนด์ชาเลนจ์" ที่ COEX ในกรุงโซล เมื่อวันที่ 11 ธันวาคมที่ผ่านมา

เดโมเดย์คือการแข่งขันที่ผู้คนพยายามจะเริ่มต้นสตาร์ทอัพแสดงความสำเร็จของตน มีผู้เข้าร่วมประมาณ 100 คน รวมถึงทีมสตาร์ทอัพจากต่างประเทศ 40 ทีม และนักลงทุนร่วมจากในและต่างประเทศ

"K-สตาร์ทอัพ แกรนด์ชาเลนจ์" ซึ่งเริ่มต้นในปี 2016 เป็นโครงการเพื่อสนับสนุนสตาร์ทอัพในต่างประเทศที่ยอดเยี่ยมในการก่อตั้งบริษัทในประเทศและตั้งถิ่นฐานในเกาหลี ในปีนี้ มีทีมทั้งหมด 1,716 ทีมจาก 114 ประเทศทั่วโลกที่สมัครเข้าร่วม

หลังจากการคัดกรองเอกสารและการประเมินการนำเสนอ ในที่สุดก็มีการคัดเลือกทีม 40 ทีม และพวกเขาได้เข้า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ในเดือนกันยายน และเตรียมพร้อมสำหรับเดโมเดย์ในครั้งนี้ภายใต้การดูแลของผู้อาวุโสสตาร์ทอัพในประเทศเป็นเวลาประมาณ 3 เดือนครึ่ง

ในวันเดโมเดย์นี้ ทีม 8 อันดับแรกที่ได้รับเลือกผ่านการประเมินความสำเร็จเชิงพาณิชย์และรอบเบื้องต้นโดยผู้อาวุโสสตาร์ทอัพแต่ละคนนำเสนอรายการสตาร์ทอัพและแผนธุรกิจของตน และในที่สุดทีม 5 อันดับแรกก็ได้รับเลือกให้ได้รับเงินรางวัลรวม 400,000 ดอลลาร์ในที่สุด

"Polymerize" (อินเดีย) ได้รับเลือกให้เป็นทีมสตาร์ทอัพ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ดีที่สุดประจำปีนี้ ซึ่งจะได้รับรางวัลมูลค่า 150,000 ดอลลาร์ อันดับที่ 2 ซึ่งได้รับเงินรางวัล \$100,000 เป็นของ "Nanodropper" (สหรัฐอเมริกา), อันดับที่ 3 "Open Energy" (โปรตุเกส), อันดับที่ 4 "Gimme Savor" (สเปน) และอันดับที่ 5 "Murple" (จีน) ตามลำดับ

สตาร์ทอัพระดับท็อปคือบริษัทที่พัฒนาซอฟต์แวร์

สารสนเทศด้านวัสดุ AI บนคลาวด์ เป็นสาขาที่ไม่ใช่เรื่องง่ายสำหรับคนทั่วไปที่จะทำหาย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สตาร์ทอัพอันดับ 2 ได้ออกแบบวิธีการสิ้นเปลืองยา และสตาร์ทอัพอันดับ 4 ยังเป็นสตาร์ทอัพที่ผลิตผลิตภัณฑ์โปรตีนจากพืชที่มีรสชาติเหมือนเนื้อสัตว์, อาหารทะเล, และชีส สตาร์ทอัพอันดับที่ 5 กำลังพัฒนาแพลตฟอร์มการแก้ไขเอกสารที่ช่วยให้นักวิจัยเขียนรายงานได้เร็วขึ้นประมาณ 5 เท่า

เป็นยังไงบ้าง? แม้ว่าท่านไม่จำเป็นต้องนำเสนอในสาขาที่ยากแต่กำลังพยายามเปลี่ยนแปลงโลกด้วยความคิดของท่านเองใช่ไหม?

ในพิธีมอบรางวัลในวันนี้ มีการประกาศทีม 20 อันดับแรก รวมถึง 5 ทีมที่ได้รับเงินรางวัล และวางแผนที่จะให้การสนับสนุนติดตามผลแก่พวกเขา เช่น เงินทุนเชิงพาณิชย์เป็นเวลา 3 เดือน และการดูแลเด็กเพิ่มเติมเพื่อช่วยให้พวกเขาตั้งถิ่นฐานและเติบโตใน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ได้

หากท่านมีความไอเดียที่ทำหายและสร้างสรรค์ อย่ายอมแพ้และลองดูสิครับ! <한글 기사 5면> 파파야스토리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고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재시흥 교민회 300여명과 2024년 수료식 및 활동보고회 성료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박결 신부)는 지난 12월 15일 시흥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재시흥 국가별 교민회와

함께 ‘2024년 수료식 및 활동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4년 한 해 동안의 센터 활동을 마무리하고, 외국인 주민들이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며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축사를 통해 “시흥시와 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주민들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

는 노력을 펼쳐왔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국가별 교민회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가장 활발히 활동한 회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한, 센터 프로그램을 마친 수료자들에게 수료장을 전달하며 그들의 성취를 축하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행사 후반부에서는 각국 교민회의 전

통 음악과 춤 공연이 펼쳐졌으며, 준비된 음식을 나누며 교민 간 화합을 다지는 오락 시간도 마련됐다.

박결 센터장은 “이번 행사는 외국인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다문화 공동체의 가치를 확인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지원을 통해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자료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쉬운 우리말 쓰기 문화 확산!

맑은물상상누리, 올해 '우리말빛 보람' 수상

시흥시(시장 임병택)의 ‘맑은물상상누리’가 지난 23일 서울 중구 새문안로에 있는 한글학회 강당에서 열린 ‘올해의 우리말빛 보람 수여식’에서 ‘올해의 우리말빛 공간 이름’ 부문에 선정돼 인증패를 받았다.

이 행사는 ‘쉬운 우리말 쓰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한글학회, 국어문화원연합회,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사업 이름과 공간 이름을 시민 공모로 선정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최 측의 발굴로 사업 이름 500여 건, 공간 이름 300여 건을 검증 후 심사했으며, 이 중에서 사업 이름 4개, 공간 이름 4개가 으뜸으로 선정됐다.

‘상상을 누리는 문화공간’을 주제로 환경, 재생, 산업의 가치를 녹여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는 ‘맑

은물상상누리(시흥시 공단2대로 14, 시흥물환경센터 내)’는 유휴 하수처리시설을 재생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공간으로 2019년 시민 공모로 이름을 얻게 됐다.

현재 이 공간은 학생들에게는 환경교육의 공간, 예술인에게는 도전의 공간, 시민들에게는 문화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정현 시흥시 경관디자인과장은 “시민 공모로 탄생한 아름다운 우리말 이름이 퍼져나가서 다시 시민들의 손으로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돼 큰 영광이다. 이 상은 오롯이 시민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올해의 우리말빛 보람 수여식’은 지난 12월 23일 서울 중구 새문안로 한글학회 강당에서 한글학회와 국어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가운데 열렸다.

송하성 기자

곤충친구 만나고, 별자리 여행!

시흥 곤충전시체험관 ‘벅스리움’에서 놀아요



시흥시에는 자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많다. 시흥시 곤충전시체험관 ‘벅스리움’은 곤충을 활용한 교육과 놀이 체험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곤충 주제의 전시관이다.

정왕동 옥구공원에 있는 이곳 상설전시관에는 곤충의 생태 및 생애주기별 특징을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벅스 스킵’ 곤충을 직접 만지며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학습·체험할 수 있는 ‘벅스 스트리트’ 등이 마련돼 있어 평소에 보기 힘든 곤충들의 생애와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기간별로 열리는 특별기획전은 예매 첫날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모든 전시와 기획전은 벅스리움 누리집을 통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특

히 겨울방학 기간에는 빠르게 매진되니 매달 초 열리는 상설전시관 예약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개인 3,000원, 어린이·청소년 2,000원의 입장료가 있다. 시흥 시민의 경우 1,000원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 3층에 있는 천문관은 낮과 밤 모두 하늘을 보며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곳으로 인기가 높다.

대형 망원경으로 행성, 성단, 성운 그리고 은하 등을 관측할 수 있는 천체 관측실을 갖추고 있고, 사계절 별자리를 볼 수 있는 5m 원형 돔 스크린을 갖춘 디지털 천체 투영실도 있어 날씨와 관계없이 천문관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다. 탁트인 야외 옥상에서는 다양한 보조망원경으로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사계절 별자리와 천체를 만나볼 수 있다.

3월까지는 19시부터 21시 시간대가 마지막 회차다. 모두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크리스마스도 가족사랑과 함께해요!

용인시가족센터, '행복이 내리는 크리스마스' 운영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용인시가족센터는 지난해 12월 18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12월 가족사랑의 날 행복이 내리는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용인시 내 약 70가정이 가족들과 함께 참여했으며 스노우볼리지 만들기,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이 소통하고 친목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일부 참여자들은 "어린이집에서 산타 행사가 없어 아쉬워했는데 좋아했어요.", "연말인데 아이와 어떤 걸 해

야 할지 막연했는데 너무 즐거운 추억 만들었습니다." 등의 소감을 남기며 즐거운 연말을 가족과 함께 보냈다는 점에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편 가족사랑의 날은 매주 수요일은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바쁜 주중 수요일 하루라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작은 실천이 가족사랑의 첫걸음이 된다는 의미에서 시작된 정부 지정 캠페인이다. 이에 용인시가족센터는 매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가족 친화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도 책과 함께하는 겨울방학

용인 공공도서관서 겨울방학 독서 체험 프로그램 운영

포곡도서관	동백도서관	모현도서관
저학년 독서교실(초1~3) 고학년 독서교실(초4~6) 마음을 채우는 미술심리(초3~4)	저학년 독서교실(초1~2) 고학년 독서교실(초3~4) 그림책과 함께하는 창의 수학보드게임(초1~2) 큐브야 놀자(초3~4)	저학년 독서교실(초1~2) 고학년 독서교실(초3~6) 나만의 캘리그래피 & 나만의 도장 만들기(초3~6)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겨울방학을 맞아 지역의 17개 공공도서관에서 독서 교실과 방학 특강에 참여할 초등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독서교실은 오는 1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17개 공공도서관(포곡,동백,모현,청덕,남사,양지해밀,이동꿈틀,기흥,보라,흥덕,서농,영덕,수지,죽전,상현,성북,동천)에서 진행된다.

각 도서관에서는 1,2월 중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특강도 진행한다. ▲동백도서관은 그림책과 보드게임을 하며 수 개념을 익히는 '그림책과 함께하는 창의 수학 보드게임(초1~2)'과 '큐브야 놀자(초3~4)'를 운영한다. ▲모현도서관은 '나만의 캘리그래피&나만의 도장 만들기(초3~6)', ▲청덕도서관은 재미있는 과학 실험을 통해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

는 '재미 광광! 과학 놀이터!(초1~3)'와 '경제야 놀자(초4~6)'를 운영한다.

▲기흥도서관은 직접 친환경 건축물을 제작하는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건축 이야기(초1~3)'와 다양한 신화를 읽고,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알수록 재미있는 그리스 로마신화(초4~6)'를, ▲서농도서관은 동화책을 읽으며 사계절의 변화와 특징을 배우는 '말랑말랑 사계절 동화 클레이(초1~3)'를, ▲영덕도서관은 오감놀이를 통해 몸의 다양한 감각들을 배우고, 감각기관의 협응 능력을 발달시키는 '펼쳐라! 놀이 백과사전(초1~3)'을 진행한다. ▲보라도서관은 코딩 프로그램을 만들어 문제해결력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코딩으로 만나는 세상(초3~5)'을, ▲상현도서관은 궁궐을 나만의 북아트로 만드는 수업인 '조선의 5대 궁궐 탐험(초1~2)'과 영어 그림책을 읽고 독후활동을 하는 '재미쑥쑥 영어 원서 특강'을 준비했다. ▲죽전도서관은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숲과 하천이 좋아요(초1~2)'를, ▲동천도서관은 서양미술의 시대별 대표작을 배우고, 다양한 재료로 표현하는 '키즈아트, 서양미술 속으로(초3~6)'를 운영한다.

도서관별 자세한 강좌 내용과 모집 일정은 각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월 7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김영의 기자

새해 맞아 1월 한 달 용인와이페이 충전 인센티브 10% 지급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5년 새해를 맞아 1월 한 달간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 충전 인센티브를 7%에서 10%로 올린다고 29일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이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월 충전 한도는 1인당 30만원이다. 30만원을 충전하면 총 33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용인와이페이는 연 매출 12억원 이하의 음식점이나 병원, 학원 등 2만 6000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용인와이페이는 충전식 선불카드의 형태로 '삼성페이' 사용자는 앱에 등록하면 실물 카드 없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도 이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시는 올해 용인지역화폐 자금 운영을 통해 총 7억원의 이자수익을 얻었다. 시가 이처럼 많은 이자수익을 얻은 것은 정기예금계좌와 MMDA를 활용해 월별 자금 수요와 예금 이율 변동 현황을 수시로 분석해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한 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는 이 이자 수입을 시 재정으로 귀속해 지역화폐 발행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용인시, 새해에 독서마라톤으로 다문화가정도 독서 습관 들여요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독서 장려 프로그램의 일환인 '독서마라톤' 대회를 오는 1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독서와 마라톤을 접목한 이 대회는 2016년 시범운영으로 시작해 현재는 용인특례시의 대표적인 독서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책을 읽고 서평을 작성하면 책 1쪽을 2m로 환산해 목표 거리에 도달하게 되고, 자신이 설정한 독서 코스를 완주해 나가는 독서 캠페인이다. 대회는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아 ▲초등 독서노트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청소년 ▲일반(성인) ▲가족(최대 5명) 7개 부문으로 구분했다. '유아'와 '초등 독서노트'를 제외한 참가자들은 걷기(5,000m), 단축(10,000m), 하프(21,100m), 풀(42,195m) 등 4개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책을 선정해 읽은 후 초등학생의 경우 책 1권당 50자 이상, 청소년부터는 1권당 100자 이상의 서평을 독서마라톤 홈페이지에 작성해야 한다. '유아' 코스는 서평을 쓰는 대신 대회 기간 내 시 공공도서관에서 130권을 대출하면 완주할 수 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초등학생을 위한 '초등 독서노트' 코스는 대회 기간 내 80권 대출 이력과 50편 이상의 독서 감상문을 제출하면 완주로 인정한다. 김영의 기자

韩国名校毕业获得学士学位, 外国劳动者、多文化家庭实现梦想!

庆熙网络大学为外国人开设在线学士学位课程... 学费也便宜 경희사이버대 글로벌자율학부

居住在韩国的外国劳动者的梦想是什么? 就是拥有稳定的签证和家人一起居住并多赚钱。为回应移民们过于简单和明确的愿望, 韩国政府最近也发表了新的签证政策。但是即便有了E-7-4签证的K-Point政策和F-2-R签证的地域特化签证政策, 外籍劳动者依然难以轻松挑战。对于那些不能适应韩国社会, 只能在工厂或饭店工作的多文化家庭来说又是怎样的呢? 希望找到更好工作的多文化家庭, 在适应韩国社会和就业方面可以采取什么措施呢?

那就是提高韩语能力和获得大学毕业学历。但是移居民同时兼顾工作和学习韩语并不容易。更何况, 在韩国大学毕业需要很多费用和时间, 所以非常困难。但是能够轻松克服这两个困难的学士学位项目诞生了!

在韩国大学毕业, 真的可能吗?

庆熙网络大学(校长: 변창구)在韩国教育部的支持下, 新设了全球自主学部, 为外国居民提供稳定、高质量的教育服务。这所大学的所有课程和考试都在网上进行, 所以可以在工作的同时完成学业。学费怎么样呢? 与韩国其他大学的年学费700万~900万韩元相比, 庆熙网络大学全球自主学部给所有学生提供50%的奖学金, 年学费仅为151万2千韩元。另外, 通过协议可以享受更多的奖学金优惠。

首先, 通过无专业进入该大学后, 一年级课程将重点学习适应大学生活和强化基础能力。主要科目有大学韩国语1和2、韩国社会和大学理解、专业探索和学习战略、全球领导力等。学生们在选择自己的专业

之前, 可以通过职业规划和多样的专业探索, 找到适合自己的发展方向。之后2~4年级时可以选择IT、电子信息、经营、旅游、韩语等多种专业进行深化学习。

不会说韩语, 怎么办?

庆熙网络大学即使不会韩语也可以入学! 无论韩语实力如何, 只要拿到录取通知, 入学前可以在该大学韩语中心接受“桥梁课程”, 即韩语研修。还能获得6个学分, 所以很好。入学后可以交替听大学韩语课程和韩国语研修课程, 培养实力。但是要想跟上韩语课程, 实际上需要3级以上的实力。如果学生考取话题四级, 还可以获得奖学金。

大学毕业有什么好处?

那么从庆熙网络大学毕业的话, 在韩国有什么优势呢? 庆熙网络大学的前身是韩国的名牌私立学校庆熙大学, 当然4年制学位也获得认可。

特别是, 取得学士学位在获得E-7-4签证方面可以获得20分, 大学毕业过程中顺利获得TOPIK4级的话, 还可以追加获得120分。可以说取得E-7-4签证并不难。此外, 当前备受关注的的地区特化签证, 拥有韩国大学学历的外国人也能获得加分, 非常有利。

在韩国大学毕业的越南出身的李智恩(音)说:“在韩国大学学习之前, 我觉得自己无法融入韩国社会”, “但是大学毕业后, 得到了很多韩国人的认可, 产生了成为韩国社会一员的自信。尤其对理解韩国社会、社会成员参与起到了很大的帮助。”

奖学金优惠和医疗费减免

庆熙网络大学原本学费低, 但全球自主学部的学生还可以通过入学考试、生活奖学金、成绩奖学金等多种奖学金制度, 进一步减少学费负担。最近庆熙网络大学97.3%的新生和插班生都获得了奖学金, 特别是全球自主学部的学生从入学到毕业都获得了50%的奖学金。另外, 该大学还为学生提供庆熙大学医院及江东北庆熙大学医院的10%医疗费用减免, 并为移民免费提供医疗翻译服务。

庆熙网络大学的全球自主学部可以提供韩国生活所需的多种知识和融合教育, 帮助学生成为公司社长和同事们认可的全球性人才。

如何报名入学?

庆熙网络大学全球自主学部2025学年第一学期第一次新生招生截止到2025年1月14日, 第二次招生截止到2月14日。报名只需通过电脑或手机登录庆熙网络大学入学申请中心网站(go.khcu.ac.kr), 通过填写入学申请书、审核资料等程序进行报名即可。

庆熙网络大学全球自主学部徐珍淑(音)教授表示:“我们希望培养移民和外国学生的学术和实务能力, 为他们在全球社会能够自信地活动提供机会”, “如果在庆熙网络大学学习, 将有助于移民在韩国建立稳定、成功的生活基础”。

有关入学的详细内容请访问入学申请中心官网(go.khcu.ac.kr)或拨打招生咨询电话(02-959-0000)进行确认。〈한글 기사 9면〉 과파야스토리

지원자격	
이주배경 상인학습자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외국인근로자, 이주배경 가정의 자녀, 해외 거주 외국인
한국어 어학능력 증명서류 제출 필요 조건	
일반 전형	한국어 어학능력 증명서류 제출 불필요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증명서류 제출 필요 내재 요건 ①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6점 이상 ②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 정규 과정이 이수 또는 세종한국어평가 296점 (중급) 이상 * TOPIK 2급 이하 및 미소지자의 경우, 입학 후 1년 내 학부에서 지정된 한국어연수(6과목) 수강 필요 * 입학 전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센터 디딤과정(한국어연수) 수강 시, 입학 후 6학점 인정함

매력	
글로벌자율학부 장학	
졸업시까지 학기당 수업료 50% 장학(18학점 기준, 한 학기 납부금액 756,000원)	
등록금 1,512,000원	등록금 (상)납부액 756,000원
다국어 지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강의 영상 다국어 자막	다국어 학습자료 강의노트
다국어 지원 실시간 화의 시스템	다국어 홈페이지
24시간 AI 다국어 챗봇 상담	
One-stop 통합지원 및 지도교수제	
원스톱 통합지원 졸업까지 필요한 정보·정정 지원 및 상담	지도교수제 11 맞춤형 학업 상담, 진로 지도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S-UP)				
학업(學UP)	취업(僱UP)	창업(創UP)	커리어업(UP)	심업(心UP)
- KHCU 전국의 날(전공별/과)	- K-기업 문화의 이해	- 전로기반 글로벌 창업 캠프	- KHCU 글로벌 탐방	- KHCU 다문화 사회봉사
- 국제 클리닉(한국어 교실)	- 워킹스킬 역량강화 프로그램	- 이주민 창업가 성공사례 특강	- 커리어 멘토링	- 이주민어 재능 기부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센터 디딤과정				
- 입학 전후 기초 수준의 한국어 향상을 위해 디딤과정(한국어연수) 운영				
- 디딤과정 이수 시, 최대 6학점 인정. 예비 신입학생 및 입학 후 1년 내 디딤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수강료 50% 지원				
이주배경 학습자 맞춤 지원				
Visa Tips	한국어 능력 지원 프로그램	외교혜택		
- TOPIK 4급 + 학사 학위 취득 시, E-7-4 비자 발급에 필요한 K-point 140점 확보 가능	- TOPIK 4급 이상 취득 시 장학금 지급	- 경희의료원 환인		
- 비자 신청 필요 점수 200점 중 TOPIK 4급 120점, 학사학위 취득 20점		- 이주민 대상 의료보험 서비스 (라이프타임) 무료 구급권 제공		
		* 처방전, 약어플 등 의료 관련 정보 16개 언어 번역 지원		

겨울방학, 가까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방학 맛이 체험프로그램 참여해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겨울방학 동안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등 국립청소년수련시설 7곳에서는 ‘2025 국립청소년수련시설 동계캠프’(2박3일)를 개최해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과 농어촌 지역, 인구감소 지역 청소년 등 전국 300여개 기관의 9,600여 명에게 겨울방학 동안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세계시민과 공동체를 주제로 ‘2025년 동근세상 만들기 행복 공감 청소년캠프’를 진행하고,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는 원예 등 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체험하는 ‘겨울방학 생명과학캠프’를 진행한다.

올해 7월 부산에 개원한 국립청소년생태센터는 자연과 함께하는 을숙도 생태계 탐방과 식물 펄프를 활용한 종이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 지역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케이팝(K-Pop) 방송댄스,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스키·보드캠프, 가상현실(VR)영상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

야의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겨울방학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또는 봉사활동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이(e)청소년 누리집(www.youth.go.kr 및 모바일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 검색창에서 ‘경기도 청소년활동’과 같이 ‘지역명(시군구명)+청소년활동 또는 봉사활동’을 검색하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들이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의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해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겨울방학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필리핀 이주민, '행복이 가득한 크리스마스' 함께하는 우리 이야기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필리핀 자조모임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더 가까운 우리"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김용국)는 지난해 12월 22일 필리핀 자조모임과 함께 외국인주민을 위한 뜻깊은 크리스마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0여 명의 외국인주민들과 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연말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공감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행사는 시작부터 특별한 응원의 메시지로 의미를 더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축기를 보내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용인특례시의회는 다문화사회의 화합을 위한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국인주민들은 직접 모금을 통해 준비한 음식, 상품, 그리고 경품을 행사에 기부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다양한 게임과 장기자랑도 진행돼 참여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날 행사는 필리핀 자조모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됐다.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이 어우러진 축제로, 참석자들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김용국 센터장은 개회식에서 “앞으

로도 이러한 자조모임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문화복지위원장은 “센터 직원들을 격려하며 외국인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외국인 자조모임과 협력하여 다문화 사회의 화합과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필리핀 자조모임은 올해 리더가 변경됐다. 새로운 리더인 김연정, 레벨린 가즈시아씨는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분

께 감사드린다.”라며 각 임원진과 회원들이 행사 준비와 진행에 쏟은 정성과 열정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의 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연말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리더들을 비롯한 자조모임 참여자들에게 따뜻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와 필리핀 자조모임이 함께한 이번 크리스마스 행사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는 모범 사례가 됐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김영의 기자



베트남 공무원, 용인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방문...환경 교육 프로그램 벤치마킹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12월 17일 베트남 호치민시 공산당 간부와 공무원 20여 명이 처인구 남동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연수단 일행은 이날 허형조 단

국대 행정학과 교수의 안내를 받아 용인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를 찾았다.

이들은 용인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운영 방법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주요 프로그램 등을 체험하고 홍보관, 교육관, 마평습지 등을 견학했다. 용인특례시는 베트남 연수단에게 주요 시설과 프로그램, 전시물 등을 설명했다.

견학에 참여한 베트남 공무원은 “시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 교육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고, 전시시설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다”라며 “이 같은 사례가 베트남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올 상반기 홍콩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등 해외에서 기후변화체험센터를 찾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며 “리모델링을 통해 기후변화체험센터를 더욱 이용하기 편하게 개선하고 프로그램도 잘 갖춰 국내는 물론이고 국

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센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연수단은 대한민국 지자체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통해 정책 기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단국대 융합사회연구소 주관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지자체와 기업을 방문하고 워크숍을 갖는 등 한국의 행정 시스템과 우수사례를 학습해 본국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태권도교실

'아듀, 2024! 다양한 가족과 함께한 광명시가족센터의 눈부신 성과'

광명시가족센터, 각 사업 별로 수료식 및 간담회 진행...성과 돌아보고 2025년 준비

광명시가족센터(센터장 남은정)는 지난 12월 21일 다문화가족 태권도교실 수료식을 마지막으로 2024년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024년 광명시가족센터는 5개(다문화가족 태권도교실, 온가족보듬사업, 라떼파과, 다문화가족 기초학습지원사업,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지원사업) 신규사업을 포함해 총 31개의 사업을 운영했다.

센터 프로그램에는 2024년 한 해동안 연인원 14만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비다문화가족이 99,529명, 다문화가족이 39,708명 참여했다.

광명시가족센터는 2024년 성과공유회를 대신하여 사

업참여자들과 함께 의미 있는 마무리를 하기 위해 각 사업별 수료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11월에는 ▲좋은 배우자학교 ▲1인가구지원사업 중장년수다살롱 ▲1인가구지원사업 힐링치유농장 ▲다문화자녀 이중언어교육지원사업 ▲다문화강사양성교육 등의 수료식이 진행됐다.

12월에는 ▲결혼이민자역량강화지원사업(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기초학습지원사업 ▲다문화가족 태권도교실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적응지원 수료식이 진행됐으며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다문화이해강사과건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강사 간담회를 통해 전반적인 사업운영을 돌아보고, 참여자들과 함께 2025년 각 사

업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은정 센터장은 “각 사업의 수료식을 통해 올해의 성과를 되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2025년에도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가족센터는 2025년에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생애주기별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가족센터 방문 또는 ☎02-6265-13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기초학습



1인가구 힐링치유농장



좋은 배우자 학교

광명시 최초 학교 안 다함께돌봄센터 문 열어...6~12세 초등학생에 돌봄 제공

광명시(시장 박승원) 첫 번째 학교 안 다함께돌봄센터가 문을 열었다. 광명시는 20일 오후 2시 광명광덕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시설인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시의장, 이용현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용호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전성화 광명광덕초 교장, 유관 기관 관계자, 이용아동과 학부모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행정복지센터 등 안전성과 접근성이 좋은 유휴공간을 활용해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자녀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학교 내 유휴 교실을 다함께돌봄센터로 조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명시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광명시와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광명광덕초 3개 기관 설치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하면서 유휴 교실 2실(135㎡)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광명광덕초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6~12세 초등학생 40명에게 정기·일시보호, 급간식 및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광명시는 민선 8기 공약인 ‘아이돌봄 걱정 없는 도시 실현’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이번 개소로 총 9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박승원 시장은 “학교 돌봄교실만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3개 기관이 뜻을 모아 이번 돌봄센터를 열게 됐다”면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며, 아이들이 잘 성장해 미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2025년 중 철산2동 생활문화복지센터 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특별 자진출국기간에 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 1년만에 돌아온 이유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2개월 연장...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법무부는 11월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던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2025년 1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어요.

이번 연장 조치는 보다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스스로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연말연시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에요.

특별 자진출국기간 내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면제 ▲입국규제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올해 9월 30일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반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돼요.

입국규제 면제, 진짜야?

많은 외국인들이 특별 자진출국기간에 한국을 떠나는 외국인에게 정말로 입국규제 면제의 혜택이 부여되는지 궁금해 해요. 실제로 입국규제 면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는 법무부의 입국규제 명단에 오르지 않는 것일 뿐이에요.

한국에서 자진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모국에서 다시 한국에 오기 위해 한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면 입국규제 명단에는 이름이 없지만 한국에서 불법체류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비자 담당 영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비자 담당 영사는 비자 발급을 거절하게 돼요.

몇 년 동안 입국 못하는 거야?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5년 동안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해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문의하는 외국인이 많은데 인도주의적인 사유가 있으면 더 일찍 입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아내를 따라서 입국한 남편이 불법체류자가 되었다가 자진출국한 경우 5년 이내에는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남편이 자진출국하기 전 아내가 임신했고 남편이 모국에 가 있는 동안 아내가 출산을 하여 혼자서 학업과 육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 경우는 누가 봐도 인도주의적인 사유라

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경우에도 처음에는 남편의 비자 발급이 거절됐어요. 하지만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실제로 출국 1년만에 한국에 입국한 사례가 있어요. 이처럼 매우 확실하고 타당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 한국에 다시 입국하기는 어려워요.

〈중국어 하단, 베트남어 11면, 러시아어 21면, 태국어 11면, 영어 21면,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6개 언어로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파파야스토리

特别自愿出国期间出国的非法滞留外国人,时隔1年再次回来的理由是什么?

法务部决定将原计划运营到11月30日的“非法滞留外国人特别自愿出国期间”延长2个月至2025年1月31日。

此次延长措施是考虑到给更多的非法滞留外国人提供自行出国的机会,以及考虑到年末年初连休等原因难以预订回国航班等。

在特别自愿出境期间内自行出国的非法滞留外国人可以享受▲免除非法滞留罚款▲免除入境限制等。

但是今年9月30日以后非法滞留的外国人和偷渡者、伪造护照者、刑

事犯、不履行出国命令者等除外。

免除入境限制,真的吗?

很多外国人很好奇,在特别自愿出国期间,离开韩国的外国人是否真的得到了免除入境限制的优惠。实际上确实有免除入境限制的优惠。但这只是没有列入法务部的入境限制名单而已。

“从韩国自愿出国的非法滞留外国人为了再次来到韩国,如果向韩国大使馆申请签证,签证负责领事就可以确认,虽然入境限制名单上没有名

字,但是在韩国非法滞留的记录仍然存在。因此,负责签证的领事会拒绝签发签证。

多少年不能入境?

即使非法滞留的外国人自愿出国,一般5年内也不能入境韩国。有很多外国人询问有没有其他方法,如果有人道主义理由的话,可以入境。

例如随着在韩国读研究生院的妻子入境的丈夫成为非法滞留者后主动出境的情况,5年内很难再次入境。但是在丈夫主动出国之前,妻子怀孕

了,丈夫在母国期间,妻子分娩,需要一个人进行学业和育儿,这种情况属于人道主义事由。

当然在这种情况下,起初丈夫的签证被拒绝了。但是妻子没有放弃,而是向国民权益委员会提出投诉。国民权益委员会认为发放签证是妥当的,实际上有过出国1年后进入韩国的事例。如果没有如此明确、妥当的人道主义理由,很难在5年内再次入境韩国。

〈한글 기사 상단〉

Papaya Story

광명시 주거복지센터, 겨울철 주거취약계층 집중 발굴...겨울철 주거취약 거주자 발굴

광명시(시장 박승원) 주거복지센터는 3월까지 겨울철 주거취약계층 집중 발굴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12월에는 주거취약계층 발굴 협조 요청을 위해 소하동, 하안동, 광명동 단독 필지 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사

업 취지를 설명하고, 점포 내 홍보물을 비치해 점주와 시민들이 주거환경이 어려운 이웃을 살피도록 독려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어 1월부터 3월까지는 비주택 거주자 현장 발굴을 위해 PC방, 만화방 등을 방문해 홍보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발굴된 주거취약자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임대 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

지원을 연계할 예정이다. 공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간 자원과 연계하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박준용 복지정책과장은 “추운 겨울철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주거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선제적 지원으로 시민의 주거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주거복지

센터는 주거복지사업 상담 및 사례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 주거복지 정책사업과 특화사업 등 시민의 주거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민이면 누구나 전화(02-2680-6003)나 센터 방문 상담이 가능하고 이동이 불편한 시민은 주거 방문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Strengthening 'specialized training' to help E-9 workers adapt to industrial site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f Korea has finalized its 2025 budget and announced how much money will be spent on which projects. Government agencies that are run by taxpayers have a duty to provide information on projects and budgets to the public.

Looking at the information announced this time, we can see how much budget will be spent on which areas for the employment of foreign residents. Let's organize this information.

Training skilled workers

Foreigners working in Korea with E-9 visas face various difficulties in Korean industrial sites. The sites themselves are unfamiliar, and they are seeing various machines and tools for the first time and do not know

how to use them. Furthermore, since they have to work and live in Korean, it is not easy to adapt. Therefor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decided to expand specialized training courses for foreign workers next year.

①E-9 Specialized Training: This program is to educate E-9 workers on basic job skills in cooperation with the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enter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r local industries. You will be trained on how to use various machines and tool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basics of your job, and in particular, you will be able to communicate in Korean to some extent in manufacturing sites. Specialized training can be applied for by employers, not foreign workers. It is

usually operated as a 4-week course, and we plan to train 6,000 people next year. We also plan to increase the number of specialized training centers for non-professional foreigners and operate them next year.

②Polytechnic Korean language training: Polytechnic universities in Korea originally run vocational training courses. They decided to conduct technical Korean language training by having foreigners participate in this course. As a pilot project, 50 foreigners can participate.

③Support for international students to work and study: It is difficult for international students to do things like company exploration, job training, and visa conversion on their own while attending school. Accordingl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plans to support a training program for 1,000 international students next year so that they can systematically work and study at the same time.

④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nd counseling support: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plans to systemize and expand safety and health education next year so that foreign workers, who suffer from industrial accidents at a higher rate than domestic workers, can work safely. It will also develop more multilingual educational content. It has also decided to strengthen support activities such as counseling for foreigners who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industrial sites.

〈한글 기사 21면〉

과과야스토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Gyeonggi-do Women & Family Foundation

경기도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지원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개시
2024년 7월 1일부터

이용대상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
※ 아이돌봄서비스 정회원으로 등록된 아동

※ 정회원 등록 방법
홈페이지 (www.idolbom.go.kr) 회원가입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
정부지원 여부 및 서비스 유형 결정 통지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를 위해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카드, 신한카드) 필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입 및 서비스 신청

신청시간 및 방법

- 365일 06시~22시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
또는 앱 직접 신청
- 평일 09시~18시(근무시간)
각 시·군 서비스제공기관 전화 신청
- 평일 18시~22시, 주말 및 공휴일 08시~20시
언제나돌봄 콜센터(010-9979-7722) 전화 신청

이용 가능시간
24시간

참여 시군
가평, 광명, 구리, 남양주, 동두천, 수원,
시흥, 안성, 평택, 화성

이용요금

시간당 11,630원 (기본)

- 2~4시간 전 및 단시간(1시간) 신청
건당 4,500원 추가
- 평일 심야(22시~06시) 및 일요일-휴일 주간 이용
시간당 17,440원(50% 증액)
- 일요일-휴일 심야(22시~06시) 이용
시간당 23,260원(100% 증액)

※ 소득유형에 따라 결제금액 변동가능

참여 시군 서비스제공기관

시군명	센터명	전화번호
가평군	가평군가족센터	031-582-9902
광명시	광명시가족센터	02-2625-0365
구리시	구리시가족센터	031-551-3133
남양주시	남양주시가족센터	031-554-8211
동두천시	동두천시가족센터	031-863-3363
수원시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245-1319
	시흥시가족센터	031-317-4516
시흥시	경기시흥작은자리 지역자활센터	031-313-1165
안성시	안성시가족센터	031-674-0130
평택시	평택시가족센터	031-692-7750
화성시	화성시가족센터	031-223-0333

※ 경기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 031-898-9748

경기도 언제나돌봄 콜센터 ☎ 010-9979-7722


2025년 설맞이 광명사랑화폐 인센티브

10% → 20% 상향

**최대 100만원 충전시
▶ 120만원 사용 가능**

기간: 2025. 1. 1.(수) 오전 9시
~ 특별예산 소진 시 까지

※ 특별 예산소진 시 자동 종료
※ 2월~3월 최대 50만원 충전 가능
(10% 인센티브)



광명시청 기업지원과 ☎ 02-2680-6326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없앤다

광명시, 3월까지 위기가구 집중발굴한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내년 3월까지 겨울철 한파로 어려움을 겪을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발굴에 나선다.

이번 발굴 대상은 계절형 실업자, 거동 불편자, 은둔형 외톨이, 1인 가구 등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가구다.

광명시는 47종의 위기징후 정보를 수집·분석해 선제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할 예정이다.

위기징후 정보 기존 44종에 노후연금 지급 대부 정보,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정보, 정책 서민금융 반려 내역 등 3종 정보가 추가돼 한층 더 촘촘하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11월 전국으로 확대된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으로 한층 더 세밀한 발굴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촘촘한 발굴 활동도 이어간다. 다중이용시설 업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광명희망평동사업단 등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1천700여 명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다.

특히, 광명시는 사회복지국장을 단장

으로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보건정책과 6개 부서와 19개 동 행정복지센터로 구성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TF'를 운영해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6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종합적 취약계층 집중 보호 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 운영 ▲주거취약 노숙인 빈번 지역 순찰 ▲한파 대비 사회복지시설·한파쉼터 점검 ▲건강취약계층 집중 방문간호 지원 등 부서별 사업 추진 사항을 공유했다. 향후 광명시는 발굴된 위기가구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우선 지원하고, 공적지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해 신속하게 관리·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희망나기운동본부 등 민간기관과 협력해 난방비, 공공금, 보일러 교체, 겨울 이불, 생필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겨울철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모든 부서가 철저히 대비해달라"며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이 있다면 광명시가족센터와 광명시청에 꼭 문의하면 좋겠다.

송하성 기자

'슬기로운 운동생활' 참여자 모집

광명건강생활지원센터, 1월 8일까지 선착순

광명시(시장 박승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25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슬기로운 운동생활' 1기 운동교실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요가, 요가·필라테스, 댄스 다이어트, 근력운동 등 4가지 종목으로 구성되며, 2025년 1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주 2회, 약 3개월간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는 시작 전후 혈압, 혈당, 인바디 등 기초 건강검사를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3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층이다. 광명시 거주 주민이

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이다. 광명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광명e지(ill.gm.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은 "광명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올바른 건강 습관 형성을 위해 운동과 건강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건강에 관심 있는 시민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운영 시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보건소 누리집(gm.go.kr/heal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하성 기자

지역화폐 인센티브 20% 상향

광명시, 민생경제 수혈...충전 한도도 올려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수혈에 나선다.

광명시는 2025년 1월부터 지역화폐(광명사랑화폐)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우선 1월 한 달 동안 지역화폐 인센티브(할인율)를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상향한다.

또 같은 기간 충전 한도를 최대 100만 원까지 늘린다.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충전하면 2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불황 장기화에 탄핵 시국까지 겹쳐 위기에 직면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지역

화폐가 지역 내 소비 활성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고물가, 고유가에 탄핵 시국까지 삼중고에 빠진 지역 상권을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대폭 상향을 전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광명시는 지난해 국비 지원이 크게 줄었음에도 1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로 연중 유지하는 등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충전 한도는 평시 30~40만 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명절 등 성수 시즌에는 50~70만 원까지 늘려 소비를 진작하고 있다.

광명시 올해 지역화폐 발행액은 1천504억 원으로 목표액 1천200억 원을 125% 초과 달성했다.

송하성 기자

임산부 영유아는 신속 입장한다

광명동굴 맞춤형 이동약자 패스트트랙제도



있어, 한층 더 편안한 관람이 가능해진다.

서일동 광명도시공사 사장은 "그동안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광명동굴은 다자녀 가족 우대정책을 시행해왔으며, 이번 패스트트랙 제도는 그 연장선"이라며 "이 제도가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는 지역의 모범사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명동굴은 광명시 가학동 가학산에 위치한 폐광이지만 총연장 7.8km에 달해 수도권에서 드물게 만날 수 있는 동굴이자 광명시가 운영하는 테마파크다. 광명동굴은 한국 100대 대표관광지와 경기도 10대 관광지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겨울철 빛 축제 등 절기마다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진행해 인기를 얻고 있다.

송하성 기자

2025년부터 광명동굴을 찾는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들의 관람 편의가 대폭 개선된다.

광명도시공사가 '광명동굴 맞춤형 이동약자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해 임산부와 7세 미만 영유아 동반 가족에게 우선 입장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성심당의 임산부 우대정책 등을 벤치마킹해 광명동굴의 특성에 맞도록 설계됐다. 특히 여름 성수기와 축제 기간 등 방문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들은 별도의 대기 없이 입장권을 발급받고 곧바로 동굴에 입장할 수

새해,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과천시 정보 확인하고 같게요~

과천시, 청년정책 수립, 공영주차장 요금 방식 개선,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서비스 등 확인

#과천시, 청년정책 5개년 수립

과천시(시장 신계용, 사진)는 2025년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청년친화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참여와 교류 확대, 구직 지원 강화, 청년 거점공간 활성화 등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5개년 기본계획은 중장기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청년의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해 청년친화도시로의 지정도 추진한다.

2025년부터는 기존의 '청년 면접장 대여사업'을 확대 개편한 '청년면접 모두드림'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1월부터 시작되는 이 사업은 면접장 대여뿐 아니라 헤어 메이크업, 이력서 사진 촬영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면접 준비 서비스로,

구직 청년의 면접 준비 부담을 대폭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들이 과천시의 다양한 청년정책과 사업을 한눈에 확인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포털'을 구축한다. '청년포털'은 과천청년네트워크의 정책 제안 사업 중 하나로, 2025년 상반기 개발을 완료해 하반기에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정책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영주차장 요금 부과 방식 개선

과천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부과 방식을 전면 조정하고,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과천시는 그동안 '30분 기본요금 부과 후 10분 단위 추가 부과'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2025년부터는 '기본요금 없이 5분 단위 부과'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6년 만에 급지별 주차요금도 인상되어, 유동 인구가 많은 상업지역(2급지)의 경우 기존 5분당 200원에서 250원으

로, 1일 상한요금은 1만7천 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인상된다.

과천시는 그간 인근 지자체 대비 낮은 주차요금으로 인해 주차장 운영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편으로 1일 상한 요금과 월정기권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공영주차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짧은 시간 동안 주차하는 시민들의 부담은 줄어들고,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2025년부터 확대한다. 독립유공자는 주차요금 면제,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50%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에 변경되는 주차요금과 부과 방식은 2025년 1월 1일부터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에 일괄 적용된다. 과천시는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서비스

과천시는 2025년부터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가격을 누리집에 공시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주가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개선하고자 문자 알림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문자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토지 소유주는 매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에 맞춰 결정 공시일에 개별공시지가 열람 정보와 결정지가, 이의신청 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과천시 소재 토지 소유주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며, 과천시 열린민원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서비스 해지 전까지 매년 문자가 발송된다.

김영의 기자

2024-2025 문원체육공원 야외스케이트장
2024.12.20.(금) - 2025.2.9.(일)

개장행사
12월 20일(금) 오후 5시 30분

장소
문원체육공원

이용료
과천시민 회차당 2,000원 (관외시민 4,000원: 장비대여료 포함)

운영시간 ※ 휴일 및 별도 공지
10:00 ~ 20:00 (월요일 ~ 목요일)
10:00 ~ 21:30 (금, 토, 공휴일)

성탄전야(12.24) / 송년제야(12.31) 22시까지 연장운영

문의: 02-507-5551 www.gcskate.co.kr

2025 설 명절과 민생 안정을 위한 지역화폐 과천토리 10% 특별할인

할인가간 2025. 1. 1.(수) ~ 1. 31.(금) [한 달간]

할인사항 월 인센티브 할인율(10% 확대)
· 카드형 : 구매한도 70만원(할인율10%)
· 지류형 : 구매한도 10만원(할인율10%)
*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안내

연중무휴, 매일 22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

운영기간 2025.1.1.(수) ~ 2025.12.31.(수)

대상약국 케어약국

운영시간 365일 밤 10:00 ~ 익일 01:00

약국주소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42, 116-1호(별양동, 6단지 상가)

연락처 02-504-1381

과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상 안내

변경 후 요금표(2025. 1. 1. ~)

구분	구역	1회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권 (신분)
		1구획 5분당	1일 상한요금	
공영 주차장	1급지	300원	28,000원	110,000원*
	2급지	250원	24,000원	150,000원
	3급지	150원	14,000원	70,000원
	4급지	100원	7,000원	50,000원
5급지	관내주민	70원	7,000원	35,000원
	관내사업자, 종사자, 법인 등록차량	150원	14,000원	70,000원
	관외주민	300원	28,000원	120,000원

* 단, 경마공원 주변 월정기(경마일, 비경마일 포함) 주차의 경우 1급지와 4급지의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함.

문의처 : 02)504-7300(과천도시공사) [자세히 보기](#)



연천 지역소식을 다문화가족에게!

연천군-연천군가족센터, 다국어소식지 제작 협약

연천군은 지난해 12월 20일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연천군가족센터와 ‘연천사랑 다국어소식지 제작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서는 김덕현 연천군수, 조금량 연천군가족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연천사랑 다국어소식지 제작을 위해 상호 정보교류, 홍보 및 마케팅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연천군가족센터는 이에 필요한 다국어 번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가족센터 244개소 중 지자체와 센터가 협력해 다국어소식지를 제작하는 것은 연천군이 처음이다. 연천사랑 다국어소식지는 올 1월부터 연천군 관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의 국

적별 거주 인원을 고려해 베트남어 등 2개 언어로 우선 발간될 예정이다. 한편 연천군은 효과적인 군정소식 전달을 위해 군정소식지 연천사랑을 매월 4,000부 발간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연천사랑 점자소식지로 확대 발간했다.

올 1월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국어소식지로 확대 발간함으로써, 다양한 주민을 위한 맞춤형 소식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연천군 관계자는 “연천사랑 다국어소식지가 언어나 문화적 차이로 정보에 취약하기 쉬운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2025년에 ‘연천FC’ 출범한다 연천군, K4리그 축구단 협약



연천군은 19일 군청 본관 2층 군수실에서 주식회사 에프씨충주와 2025년 K4리그 참가를 위한 운영 및 관리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에프씨충주는 K4리그 축구단 ‘FC충주’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이번 협약에 따라 연고지를 연천군으로 이전하고 팀명을 ‘연천FC’로 변경해 2025년 K4리그에 참가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김덕현 연천군수, 축구단의 윤현영 대표, 김병수 총감독, 최정민 감독 등이 참석하여 연천군 축구 발전과 구단 비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군을 연고로 하는 축구단, 연천FC가 연천군민께 즐거움을 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며 “축구단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해 경기장 시설 사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영 대표는 “연천군과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김덕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새로운 보급자리에서 선수들과 함께 하며, 내년 K4리그에서도 연천FC가 좋은 성적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에게 도움 될 연천 정보,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및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천군은 오는 1월 2일부터 2월 14일까지 여성농업인을 위한 특수 건강검진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연천군에 거주하며 흡수 연도에 출생한 51세부터 70세 이하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약 2만2000원의 자부담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항목으로는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검사 등으로 추가적으로 농작업 질병의 조기 진단과 함께 사후관리와 예방교육, 전문의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연천군은 대상자를 모집해 3월부터 관내를 이동하는 의료기관 검진버스 통해 검진할 예정이다. 검진대상자는 연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진차량을 통해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1~2월 검진대상자 모집

을 통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할 예정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2월 14일까지며, 전체 사업량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연천군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는 ‘2025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1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5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자)의 독립경영 3년 이하(2022년 1월 1일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독립경영예정자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위의 자격요건을 본인이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농림사업

정보시스템으로 접속해 신청서,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을 업로드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영농경력에 따라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배우처 방식으로 차등 지급하며, 영농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지원 및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최대 5억원 한도)을 연계 지원한다.

신청 후 서류평가(2월) 및 면접평가(3월)를 거쳐 3월 말에 최종 대상자를 선발하며, 선정이 확정된 청년농업인은 의무 영농기간 동안은 독립영농 유지, 의무교육 이수,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재해보험가입 및 자조금 납부, 정착지원금 성실사용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6개 언어로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김영의 기자

더 나은 아이돌봄서비스 위해 소통~

김포시가족센터, 아이돌보미 정서지원 프로그램 실시



김포시가족센터(센터장 박철상)는 지난 12월 6일 재직 중인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오전, 오후 2회기에 걸쳐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돌보미 활동으로 인한 소진예방 및 정서적 지지와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감정적 부담을 덜어내고, 식물과의 교감을 통해 힐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프로그램은 식물의 성장과 생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교육을 듣고, 포인세티아를 직접 심고 장식을 하는 등 아이돌보미가 실내 정원에서 소통하고 활동

할 수 있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식물의 성장 과정, 생태적 특성, 그리고 식물이 인간의 정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배웠다. 또한 강사는 아이돌보미들에게 식물의 다양한 특징과 관리 방법을 지도하고 식물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음을 안내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 모 아이돌보미는 “직접 포인세티아를 심고, 어떻게 돌봐야 할지에 대한 팁을 얻으며 식물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힐링의 시간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기쁨을 찾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아이돌보미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기돌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면서 “향후에도 다양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홈페이지 (<https://idolbom.go.kr>)에서 직접 신청, 또는 김포시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031-996-5922)으로 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김포시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 발대...8개국 15명 소방활동 지원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12월 19일 김포시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 발대식에 참석해 재난 대응에 고생하는 소방관·각 기관단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김포시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는(대장 이나니-방글라데시) 8개국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도 내 안산시에 이어 2번째로 발족했다.

김포시의 '시민생활 밀착형 안전문화'에 발맞춰 주민 안전 증진을 위해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시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도시로 연임되었다. 23개 회원도시가 있는데 다문화 소방대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례는 보기 힘들다”며 “모든 다문화가족이 김포시의 일원으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지역사회 다양한 가족의 복리를 위해 다양한 이주민 정책을 실천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하성 기자

겨울철 재난·안전위험요소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겨울철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4. 12. 1. ~ 2025. 2. 28. (대설·한파 위험요소는 3. 15.까지 운영)

참여대상 국민 누구나(외국인 포함)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 (www.safetyreport.go.kr)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해넘이·해맞이 등)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언어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국내 체류외국인에게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이용대상 국내에 거주 중인 모든 외국인

- 체류자격, 불법체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이 이용 가능
-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초기 귀화자도 이용 가능

상담절차 법무부 산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가 상담 지원

상담 절차도

의뢰인

상담원

마을 변호사

- 외국인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 법률상담 요청**
외국인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에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언어를 선택하고, 법률상담을 요청
- 외국인과 마을변호사 상담 연결**
통역필요 여부에 따라 변호사와 직접연결 또는 외국인-상담원-변호사 3자통역을 진행함

상담범위 임대차계약, 산업재해, 범죄피해 등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모든 생활법률 문제에 대해 상담 가능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상담 사례

<이혼 후 자녀양육권>

질문의 내용
국제결혼 후 부부관계 등 가정문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피상담자가 이혼 후에 친모인 자신이 자녀(4세)에 대한 양육권을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

부부 관계와 양육권은 별개 문제임을 설명
양육권은 아이를 키우는데 더 적당한 사람에게 부여하며, 부부관계는 두 사람간의 문제로 양육권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양육권을 갖기 위해서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나 양육계획 등이 필요함을 안내

Won a prize and visa in Korea for an idea to reduce drug waste!

'K-Startup Grand Challenge' 8 Startup Teams Announce Results at Demo Day

When coming to Korea to work, many foreigners often think about obtaining an E-9 visa. However, rather than working at a Korean factory with an E-9 visa, how about getting a 'Startup Korea Special Visa' or a Technology Startup (D-8-4) visa and working in Korea as an entrepreneur, albeit at a small company?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held the '2024 K-Startup Grand Challenge' Demo Day at COEX in Seoul on December 11. Demo Day is a competition where people who are challenging startups show their achievements. About 100 people, including 40 foreign startup teams and domestic and foreign venture investors, attended.

The 'K-Startup Grand Challenge',

which began in 2016, is a program that supports excellent overseas startups to establish domestic corporations and settle in Korea. This year, a total of 1,716 teams from 114 countries around the world applied to participate.

After document screening and presentation evaluation, 40 teams were finally selected, and they entered Korea in September and prepared for this demo day under the care of domestic startup planners for about three and a half months.

On this day, at Demo Day, the top 8 teams, selected through an evaluation of commercialization achievements and a preliminary round by startup planners, presented their startup items and business plans, and the top 5 teams were finally selected to receive a total

of \$400,000 in prize money.

'Polymerize' (India) was selected as the best foreign startup team of the year, receiving a prize of \$150,000. 'Nanodropper' (USA) took second place, 'Open Energy' (Portugal) third place, 'Gimme Savor' (Spain) fourth place, and 'Murple' (China) fifth place, each receiving a prize of \$100,000.

The number one startup is a company that develops cloud-based AI material informatics software. It's not an easy field for most people to challenge.

But the second-place startup is working on a way to reduce drug waste, while the fourth-place startup is making plant-based protein products that can flavor meat, seafood, cheese, and more. The fifth-place startup is working on a document editing platform

that will help researchers write papers about five times faster.

How about it? Are you trying to change the world with just your own ideas, without necessarily having to deal with difficult areas?

At the awards ceremony that day, the top 20 teams, including the five teams receiving prize money, were announced, and they will be provided with follow-up support such as three months of commercialization funding and additional childcare to help them settle and grow in Korea.

If you have a challenging and innovative idea, don't give up and challenge yourself, even if you are a foreign resident!

〈한글 기사 5면〉

파파야스토리

Идея сокращения потерь лекарств принесла приз и визу в Южной Кореи! "K-Startup Grand Challenge 2024"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Многие иностранцы, приезжающие в Южную Корею на работу, обычно задумываются о получении визы E-9. Однако вместо того чтобы работать на заводах по этой визе, почему бы не попробовать получить специальную визу для стартапов (D-8-4) и работать в Корее в качеств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 даже если ваша компания небольшая?

Министерство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и стартапов 11 декабря провело в COEX (Сеул) демо-день программы K-Startup Grand Challenge 2024.

Демо-день —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на котором стартапы демонстрируют свои достижения. В н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40 иностран

ных стартапов и более 100 венчурных инвесторов из Кореи и других стран.

О программе K-Startup Grand Challenge

Программа была запущена в 2016 году для поддержки создания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иностранными стартапами и их адаптации в Корее. В этом году в ней принял участие 1 716 команд из 114 стран. После этапов отбора и презентаций в финал вышли 40 команд, которые приехали в Корею в сентябре. В течение 3,5 месяцев в они готовились к демо-дню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корей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На демо-дне команды представили свои стартап-идеи и бизнес-планы. Среди

них выбрали 8 лучших, а 5 из них получили призовой фонд общей суммой \$400 000. 1-е место и приз в \$150 000 достался индийскому стартапу Polymerize, разработавшему облачное программ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на базе ИИ для анализа материалов. 2-е место (\$100 000) занял американский стартап Nanodropper, представивший идею сокращения потерь лекарств.

3-е место (\$70 000) получил португальский стартап Open Energy.

4-е место (\$50 000) занял испанский стартап Gimme Savor, производящий растительные белковые продукты с вкусом мяса, морепродуктов и сыра.

5-е место (\$30 000) занял китайский с

тартап Murple, разработавший платформу для ускоренного написания научных статей.

Что думаете?

Не обязательно выбирать сложную область, чтобы менять мир. Многие участники конкурса делают это с помощью простых, но эффективных идей.

На церемонии награждения были объявлены 20 лучших команд. Помимо призов, они получают поддержку в течение 3 месяцев для коммерциализации своих проектов и адаптации в Корее.

Если у вас есть смелая и инновационная идея, не сдавайтесь и попробуйте свои силы! 〈한글 기사 5면〉 파파야스토리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김포시청 031-980-2114 김포시가족센터 031-996-5923 김포외국인주민지원센터 031-986-7660 이주노동자지원센터 김포이웃살이 031-987-6241
김포이주민센터 031-982-7661 김포여성의전화 031-986-0136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999-09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이주민·외국인을 위한 학위과정 개설

경희사이버대학교 글로벌자율학부

글로벌자율학부로 입학 (1학년)

한국어기초(한국어센터), 대학한국어, 한국사회및문화이해, 전공탐색, 진로및경력개발 등 학습

선택이 가능한 학부(전공)·과 (2~4학년)



2학년 진입 시, 경희사이버대 모든 학부(전공)·과 중 선택 가능
(한국어능력+직업능력 향상)

재학생 혜택

장학지원

- 글로벌자율학부로 입학 시, 졸업까지 등록금 **50% 감면** 혜택
- * 한 학기 등록금 : 756,000원 (6과목 등록 기준)

비차지원

- TOPIK 4급 취득 및 학사 학위 취득 시, E74 비차 발급에 필요한 K-point 140점 확보 가능
- TOPIK 응시료 지원 및 TOPIK 4급 취득 시 장학금 지급

학위취득

- 온라인으로 정규 4년제 대학 학사 학위 취득
- 경희사이버대학교 진학 후, 오프라인 대학교 편입 및 대학원 진학 가능

교육지원

- 한국어센터 한국어 강의(디딤돌 과정) 수강료 **50% 감면**

의료지원

- 경희의료원 의료비 할인 혜택
- 의료 번역 서비스 지원(리터러시M)

QR코드



- 입학지원센터 go.khcu.ac.kr
- 입학문의 02-959-0000
- 글로벌자율학부 02-3299-8723

Khai giảng các khóa học cấp bằng dành cho người nhập cư và người nước ngoài

Trường đại học từ xa Kyung Hee, Khoa tự chọn toàn cầu

Xét tuyển vào Khoa tự chọn Toàn cầu (năm 1)

Học tiếng Hàn cơ bản (Trung tâm tiếng Hàn), tiếng Hàn đại học Tìm hiểu xã hội và văn hóa Hàn Quốc, tìm hiểu chuyên ngành, hướng nghiệp và phát triển nghề nghiệp, v.v.

Khoa (chuyên ngành)/khoa tự chọn (từ năm 2 đến năm 4)



có thể tự chọn tất cả các khoa (chuyên ngành) của Trường đại học từ xa Kyung Hee khi nhập học năm 2 (nâng cao kỹ năng tiếng Hàn + kỹ năng nghề)

Quyền lợi dành cho các sinh viên đang theo học tại trường

Hỗ trợ học bổng

- Khi nhập học Khoa tự chọn toàn cầu sẽ được **miễn giảm 50% học phí** cho đến khi tốt nghiệp
- * Học phí mỗi học kỳ: 756.000 won (khi đăng ký 6 môn)

Hỗ trợ xin cấp visa

- Khi đạt TOPIK cấp 4 và có bằng cử nhân, sẽ được đảm bảo đạt 140 điểm cần thiết để xin cấp visa E74
- Hỗ trợ lệ phí thi TOPIK và cấp học bổng khi đạt TOPIK cấp 4

Lấy bằng cử nhân

- Lấy bằng cử nhân tại Trường đại học thuộc hệ chính quy 4 năm qua online
- Sau khi nhập học tại Trường đại học từ xa Kyung Hee, các bạn sinh viên có thể liên thông sang Trường đại học hệ chính quy hoặc liên thông lên hệ cao học

Hỗ trợ giáo dục

- **Miễn giảm 50% học phí** cho các khóa học tiếng Hàn tại Trung tâm tiếng Hàn (Khóa học Didimdol)

Hỗ trợ y tế

- Ưu đãi giảm giá chi phí y tế tại Trung tâm Y tế Kyung Hee
- Hỗ trợ dịch vụ dịch thuật y tế (Kỹ năng M)

Mã QR của trang chủ



- Trung tâm tuyển sinh go.khcu.ac.kr
- Tư vấn tuyển sinh 02-959-0000
- Khoa tự chọn toàn cầu 02-3299-8723

출입국 인포

국내 체류외국인이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각종 신고 의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고용, 이사, 인적 사항 변경 등 일상상의 변화가 있을 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관할 출입국관리서 등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체류외국인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각종 신고 의무를 알아보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01 고용주 신고 의무

- ① (대상)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C-4, E-1-E-10, H-2) 외국인을 고용한 자/ 외국인 기술연수업체의 장
-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외국인 이 퇴직한 날부터 15일 이내
- 외국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
-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
- 고용계약의 중요 내용을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

02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 ① (대상) 등록외국인, 거소신고자
- 인적사항 및 여권정보 변경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이후 추가(D-1, D-2, D-4-D-9)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여부
-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 변경(D-10)
- 취업 개시 사실 및 업체 변경(H-2)
- 직업 또는 연간소득금액의 변경(D-7-D-9, F-2, F-4, F-6)
-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03 체류지변경(국내거소이전) 신고

- ① (대상) 등록외국인, 거소신고자
- (등록외국인) 전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국내거소신고자) 거소이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새로운 체류지의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의 주민센터, 새로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서 방문 또는 전자민원으로 신고
- 체류지변경신고서, 국내거소이전 신고서, 체류지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제출

04 외국인유학생 및 여학연수생 관리 및 신고

- ① (대상) 외국인이 재학 중이거나 연수 중인 학교의 장
- 유학생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출입국관리서에 통보
- 매 학기 등록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고: 해당 등록기한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 휴학 신고: 휴학일부터 15일 이내
- 재적하거나 유학 또는 연수 중단 신고: 재적하거나 유학 또는 연수를 중단시킨 날부터 15일 이내

Place +

Essential Reporting Obligations Every Foreign Resident in Korea Should Know!

Foreign nationals residing in Korea are required to report their employment, relocation, changes to their identification details, or any other personal changes to an immigration office with jurisdiction over their place of residence in accordance with the Immigration Act. As the failure to comply with these reporting obligations may result in civil penalties, it is essential to take note of the details of these obligations in advance. Let's have a look at reporting obligations every foreign resident should be aware of.

*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HiKorea" website (Information Sharing Corner - Immigration/Stay Guide - Obligations to Report).

01 Reporting by Employers who Employ Foreign workers

- Applicable to: An individual who employs a foreign worker (C-4, E-1 to E-10, or H-2 visa holders) or the head of an enterprise that provides a foreign worker with industrial technology training
- Within 15 days of the dismissal or retirement of a foreign worker
- Within 15 days of the employer becoming aware of the death of the foreign worker
- Within 15 days of the employer becoming aware that the whereabouts of the foreign worker cannot be ascertained
-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any significant changes to the terms of the employment contract

02 Reporting Changes to Registered Information for Foreign Nationals

- Applicable to: Registered foreign residents and F-4 visa holders
- Changes to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or passport details
- Changes to or addition of an affiliated organization or group (D-1, D-2, or D-4 to D-9 visa holders)
- Enrollment status in schools under the Article 2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 Commencement of training or changes to training institution (D-10)
- Commencement of employment or changes to workplace (H-2)
- Changes to occupation or annual income (D-7 to D-9, F-2, F-4, or F-6)
- Must report within 15 days of any changes

03 Reporting a Change of Place of Residence

- Applicable to: Registered foreign residents and F-4 visa holders who have reported their domestic residence
- (Registered foreign residents)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moving-in
- (F-4 visa holders)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moving-in
- Submit a report on the change of place of stay by visiting the city hall (si), county office (gun), district office (gu), or the community center of the eup, myeon, or dong with jurisdiction over the new place of stay, or by using electronic petition services
- Must submit the Application Form for Alteration of Residence or the Change of Address Notification Form for Overseas Koreans, along with documents proving residence (such as lease or rental agreements and purchase contracts)

04 Management of International Students

- Applicable to: The head of a school where a foreign national is enrolled as a student or trainee
- Must designate a person in charge of managing international students and report this to an immigration office
- File a report if an international student fails to register by the registration deadline of each semester: within 15 days from the day following the registration deadline
- File a report if an international student takes a leave of absence from school: within 15 days of the leave date
- File a report if an international student is expelled or their study or training is discontinued: within 15 days of the date of expulsion or suspension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

김포시가족센터, 산모교실 '아가야~엄마야!'



김포시가족센터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임신부 및 신생아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8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산모교실 '아가야~엄마야!'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산모들에게 임신, 출산,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모교실의 강의 내용은 분만 과정, 신생아 발달, 울음의 종류 등 태어날 아기

면 교육, 애착 육아 등 실제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또한 태명 액자 만들기, 이유식 만들기과 같은 체험활동을 통해 정서적·심리적 공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산모교실 참가자들은 "아이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 "궁금했지만 어디서 알아봐야 할지 몰랐던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며 만족하는 평가를 남겼다.

이지은 기자

심야약국 추가 지정...편의 증진

김포시, 연중무휴 공공심야약국 2개소 확대 운영



민선8기 김포시가 실효성 있는 시민 건강 관리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새해부터 공공심야약국을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 운영하면서 북부권 주민의 의료편의가 확장된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결포동 소재 한사랑약국 외에 북부권에 위치한 신양곡프라자약국을 추가 지정하면서 오는 1월 1일부터 운영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시간 동안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약국으로 심야 및 휴일 시간 지역주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적절한 복약상담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

김포시는 2015년부터 김포시 결포동에 위치한 한사랑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었으나, 북부권 5개 읍·면지역 주민의 경우 거리가 멀어 이

용에 불편이 있었다. 이를 주목하던 시는 2025년부터 사업주체가 경기도에서 국가로 변환되는 시기에 2곳으로 확대해 신청하는 한편, 양촌읍 신양곡프라자약국과도 소통을 이어가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 지정에 성공한 것이다.

김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함께하는 김포시약사회(회장 전복례)는 "늦은 밤 갑자기 아픈 경우 공공심야약국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약을 구입하거나 상담받으시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김포시보건소(소장 구영미)는 "공공심야약국 추가지정을 통해 심야시간대 북부권 5개 읍·면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로 약물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계층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 실시

미디어와 예술의 융합 '김포미디어아트센터'



김포 브랜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민선8기 김포시가 이번에는 실감형 미디어아트 전시공간과 미디어터러시 교육 및 제작, 체험공간을 고루 갖춘 김포미디어아트센터를 개관해 한층 높아지고 넓어진 문화예술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 20일 김병수 시장과 문화예술 분야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미디어아트센터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미디어 교육과 미디어아트 전시 운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아트센터는 총 3개 공간으로 ▲실감형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전시하는 미디어아트관 ▲미디어 교육 공간으로서 영상스튜디오, 라디오스튜디오, 디지털교육실로 구성됐다. ▲또한 아트센터 로비와 복도 공간에 개방감을 부여해 미디어월과 미디어포토존, 갤러리가 함께 어울리는 시민문화 향유와 휴식 공간으로 아트센터를 재구조화했다.

달라진 공간은 시민들의 미디어아트 감상과 미디어교육 제공으로 이용되는데, 특히 우수한 콘텐츠의 미디어아트로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시는 내년 2월말까지 프랑스의 화가 앙리 마티스의 생애와 예술관, 작품을 담은 "앙리 마티스, 빛으로 노래하고 색으로 춤추다"를 전시하고, 같은 해 하반기 중 또 하나의 저명한 화가인 구스타프 클림트 展을 전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미디어아트센터는 미디어 교육기관으로서 생성형 AI 등 뉴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교육과 체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부분은 김포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날 개관식에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는 교통과 교육에 이어 시민 일상의 문화까지 크고 작은 변화로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김포미디어아트센터는 미디어와 예술을 융합한 거점으로,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일상에서 미디어를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이 될 것이다. 김포시는 우리 시민 모두 함께 미디어로 일상문화를 즐길 수 있게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든 연령과 세대, 지역간 미디어 격차 해소를 표방하는 김포미디어아트센터는 지난 2022년 말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비 15억원, 시비 15억원 총 30억원 사업비를 들여 조성됐다.

2023년 투자심사, 제안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1월, ㈜엑스오비스와 EBS미디어㈜ 컨소시엄과 계약하고 본격적으로 조성에 착수했다. 김포시는 운영의 전문화와 시민 문화 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 센터의 운영을 김포문화재단으로 위탁했다.

송하성 기자





‘교육과 체험으로 즐거운 가족생활’

김포시가족센터, 군가족 ‘슬기로운 가족 탐구생활’

김포시가족센터는 해병대 제2사단과 연계하여 군 가족 대상 행복한가족프로그램 일환으로 ‘슬기로운 가족 탐구생활’을 11월 30일과 12월 7일, 각각 2회씩 총 4회기를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군인의 직업 특성상 가족 구성원의 장기적 분리, 잦은 업무 및 불규칙한 가족생활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족문제를 예방 및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군인 부모와 5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의 직업탐구와 부모의 취미탐구를 가족 구성원들이 교육과 체험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험 및 교육체험을 제공했다.

김포 한지이야기에서 11월 30일에 진행된 1,2회기는 자녀의 직업탐구생활로 한지공예에 체험 및 한지에 대한 역사와 원리를 배웠다. 부모의 취미 탐구생활로는 가족피자 만들기과 가족이 함께 음료를 마시며 정원을 걷는 ‘힐링 티타임’ 시간을 가졌다.

강화 옥토끼우주센터와 강화루지에서 12월 7일에 진행된 3,4회기 프로그램은 가족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3회기 옥토끼우주센터 프로그램은 자녀의 직업 탐구생활로 우주과학자에 대한 체험과 교육을 함께

탐색했으며, 4회기 강화 루지에서는 서해안을 바라 보며 케이ابل 및 루지체험을 통해 자녀와 함께 군인 부모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회가 됐다.

1~4회기를 모두 참여한 한 가족은 “프로그램 구성과 질 모두 너무 좋고 취지와 너무 잘 맞는 사업이다. 가족들과 풍족하게 지낼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군 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 모두에게 제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정은 “사춘기가 온 아이와 모처럼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내년에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만족했다.

김포시가족센터는 2023년도에 이어 2024년도에도 행복한가족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군인가족 외에도 생애주기별, 가족유형별 등 다양한 가족을 세분화하여 가족의 환경과 생애주기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 가족 갈등, 가족 소통의 어려움 등 다각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5년에도 김포시가족센터는 김포시의 다양한 가족이 건강한 가족생활과 가족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จำนวนผู้ถูกว่าจ้า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ะลุ 1 ล้านคน...88% 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ได้รับเงินเดือนมากกว่า 2 ล้านวอน

ในขณะที่จำนว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อาศัยอยู่ในเกาหลีเกิน 1.56 ล้านคน ซึ่งถือเป็นจำนวนมากที่สุดเท่าที่เคยมีมา แต่จำนว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ทำงาน ในเกาหลีก็เกิน 1 ล้านคนเป็นครั้งแรกเช่นกัน นอกจากนี้ พบว่าประมาณครึ่งหนึ่งของ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มีเงินเดือนอยู่ในช่วง 2 ล้านวอน

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มาทำงานที่เกาหลี

สำนักงานสถิติแห่งชาติเพิ่งประกาศ “ผลการสำรวจสถานการณ์จริงการพำนักของผู้ย้ายถิ่นและการจ้างงานปี 2024” และระบุว่า ณ เดือนพฤษภาคมปีนี้ จำนว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อาศัยอยู่ในเกาหลีที่มีอายุมากกว่า 15 ปี อยู่ที่ 1,561,000 คน เพิ่มขึ้น 9.1% (130,000 คน) จากปีที่แล้ว นี่เป็นจำนวนที่ใหญ่ที่สุดเท่าที่เคยมีมา

จำนวนผู้ปฏิบัติงานที่เพิ่มขึ้นอย่างรวดเร็ว เนื่องมาจากจำนวนผู้ปฏิบัติ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ได้รับ “วีซ่าการจ้างงานที่ไม่ใช่ฝีมืออาชีพ (E-9)” มีจำนวนถึง 302,000 คนในปีนี้ เพิ่มขึ้น 34,000 คน (12.6%) จาก 1 ปีก่อน

ค่าจ้างรายเดือนโดยเฉลี่ยที่พวกเขาได้รับอยู่ระหว่าง 2 ล้านวอนถึงน้อยกว่า 3 ล้านวอน ซึ่งมากที่สุดคือ 489,000 คน (51.2%) ตามมาด้วยมากกว่า 3 ล้านวอน (37.1%) และมากกว่า 1 ล้านวอนถึงน้อยกว่า 2 ล้านวอน (8.4%) เมื่อแยกตามภาคอุตสาหกรรม เหมืองแร่และการผลิตมีจำนวนมากที่สุดที่ 461,000 คน และมากกว่า 100,000 คน ในธุรกิจค้าปลีก/ที่พัก/ร้านอาหาร (191,000 คน) และอุตสาหกรรมธุรกิจ/เอกชน/บริการสาธารณะ (144,000 คน)

จำนวนผู้ย้ายถิ่นจากการสมรส, ชาวเกาหลีโพ้นทะเลยังคงอยู่ในระดับสูงเป็นประวัติการณ์อีกครั้ง

ในบรรดา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อาศัยอยู่ 1,561,000 คน จำนวนชาวเกาหลีโพ้นทะเล, ผู้ย้ายถิ่นจากการสมรส, นักศึกษาต่างชาติก็สูงที่สุดเท่าที่เคยมีมาเช่นกัน

จำนวนผู้ย้ายถิ่นจากการสมรสซึ่งแต่งงานกับชาวเกาหลีเพิ่มขึ้น 1.7% จากปีที่แล้วเป็น 122,000 คน และจำนวนชาวเกาหลีโพ้นทะเล เช่น ชาวเกาหลีที่อาศัยอยู่ในจีนและชาวโครยอ เพิ่มขึ้น 4.1% จากปีที่แล้วเป็น 402,000 คน จำนวนนักศึกษาต่างชาติเพิ่มขึ้น 6.4% เมื่อเทียบกับปีที่แล้ว โดยแตะ 200,000 คน จำนว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เช่น จีน, เวียดนาม ที่มีถิ่นที่อยู่ถาวรในเกาหลี เพิ่มขึ้น 7.6% ใน 1 ปี เป็น 141,000 คน ซึ่งมากกว่า 2 เท่าของจำนวนผู้คนในปี 2012 ซึ่งก็คือ 65,000 คน

62.1% 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มีถิ่นที่อยู่ถาวรกล่าวว่าพวกเขาวางแผนที่จะได้รับสัญชาติเกาหลีในอนาคต

ความพึงพอใจในการใช้ชีวิตอยู่ในระดับสูง แต่ภาษาเป็นปัญหา

เมื่อเราสอบถามชาวต่างชาติเกี่ยวกับความพึงพอใจต่อการใช้ชีวิตในเกาหลี 84.3% ตอบว่าพวกเขา “พึงพอใจ” ซึ่งเพิ่มขึ้น 3.9% เมื่อเทียบกับไตรมาสก่อนหน้า สำหรับความยากลำบากในการใช้ชีวิตในเกาหลี ค่าตอบที่พบบ่อยที่สุดคือไม่มี (34.7%) รองลงมาคือปัญหา ทางภาษา (29.8%), ความเหงา (13.0%), และปัญหาทางการเงิน (9.3%) โดยปัญหาทางภาษาเพิ่มขึ้น 5.1% เมื่อเทียบกับปีที่แล้ว และความเหงาลดลง 3.9%

สำหรับคำถามที่ว่า “ท่านเคยถูกเลือกปฏิบัติในปีที่ผ่านมาหรือไม่” 17.4% ตอบว่า “ใช่” สาเหตุที่พบบ่อยที่สุดของการเลือกปฏิบัติคือ “ประเทศต้นทาง” อยู่ที่ 54.5% รองลงมาคือทักษะภาษาเกาหลี (31.2%) และรูปลักษณ์ภายนอก (9.1%) ตามลำดับ <한글 기사 1면> 파파야스토리